



목차 Vol.17 2018

03	인사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장 이해란
04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교장 김혜정
05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자형
06	축사	북미주 동창회 회장 이경해/ 남가주 후원 이사장 이안나
07	50주년 기고 거울 1954	조경숙
08	50주년 기념 간담회	백경희 외
13	환경 보호 아름다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윤경
14	환경 보호 내가버린플라스틱, 참치조개가 먹고 내가 다시 먹는다	조선일보
17	환경 보호 BEYOND 벼룩시장	이혜란
18	아름다운 이화인 오늘도 그림이 내게로 온다	안영일
20	아름다운 이화인 멕시코 대학에 한국어반 창설 후 1년을 돌아보며	홍연숙
22	아름다운 이화인 David 종재 Lim 영전에 드립니다.	이혜리
23	글모음 변하지 않는 사랑	이영숙
24	글모음 칠순의 행복	이혜숙
25	글모음 My Homesick & Live Show	전서경
26	글모음 마지막 남은 고민거리	박기순
27	글모음 찬란한 낙엽	이부원
28	글모음 봄 비	정경실
29	글모음 영이 겸손하며 노력하는 천재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이혜경
30	글모음 길건 짧건 간에 여행은 일탈이다	호진희
31	글모음 눈으로 보는 속삭임	김명옥
32	감사의 작은 음악회	김경덕
34	이모저모	
36	합창단 보고	이윤경
38	교양모임보고 문화탐방	정은경
39	교양모임보고 골프모임	최동은
40	교양모임보고 걷기반, 민화교실	백혜란/심현주
42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다녀와서	한영숙
44	재상봉 이화 졸업 60주년 재상봉 잔치를 마치고	이장란
46	재상봉 아! 리들리(Reedley)여!, 광활한엘로스톤(Yellowstone)이여!	윤수경
48	재상봉 67기 크루즈 여행기	김명숙/우남희/박영신/김영례
50	재상봉 Viva Ewha 68!	정은옥
52	동기소식	각기 대표
66	이사회비 및 동창회비 내역	이대경
67	편집후기	백경희



표지디자인 / LAYOUT 이해란

남가주 거울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보

발행일 | 2018년 10월 30일 편집인 | 백경희

발행인 | 동창회장 이해란 편집위원 | 호진희, 이윤경, 박영신, 백경희, 이영숙, 이해란, 강정임, 박연옥, 윤은옥, 정애수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 17호 거울지를 발행하며...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제17호 거울지를 발행하며 지난 2년을 돌아봅니다. 과연 제가 동창회 살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전혀 답이 없는 상태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시작을 하며 동창주소록을 훑어 보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1,000명 가까이 되는 동창들 숫자를 보고 얼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 긴밀하고 효율적인 연락망이 절실했습니다.

2017년 1월 한 달 내 내 일면식도 없는 선후배님들께 수도 없이 확인전화를 드리며 실행위원회, 기대표단체창 등 모임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체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어 크고 작은 행사와 모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2년 내 내 우리의 뿌리인 '자유·사랑·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으며 이화인이기에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며 선한 목적을 실천하는 단체로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우리 이화모임에서 전지구적으로 크게 생각하며 지역적으로 작은 실천을 하자는 마음으로 '벼룩시장'을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흐지부지 중도포기를 하게 될까 염려되어 2017년 3월 정기 이사회에서 감히 2년 동안 10번을 열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닥아오는 2018년 송년모임에서의 10번째 벼룩시장을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게 되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저희 동창회에 예상치 못한 선물같은 부수 효과들도 생겼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이 모인 수익금으로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호단체를 후원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장학/선교 지원도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친구를 찾은 듯 저희 동기 사이도 동창에서 절친으로 돈독해지고 선후배 간의 유대가 더욱 끈끈해지며 동창회가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됨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가능케 한 72기 동기들의 무한 긍정의 힘에 찬사를 보내며 참여한 모든 동창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 50 주년을 기점으로 이화모임이 선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동창회로 거듭나는 현장에 있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며 차기 회장단에서도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 활짝 피어나기를 희망하며 응원합니다.

17호 거울지 발행과 함께 2017/18년 마지막 행사가 될 12월 1일에 있을 송년모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소원하였던 동창님들도 많이 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난 2년 동안 저희 회장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맡겨주셨음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장 이혜란



미국 남가주 동창님께...

남가주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남가주 동창회의 제17호 거울지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은 이화 창립 13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29일 저녁에 비가 내려 햇불예배를 보지 못하였지만 다행이도 다음 날은 날씨가 화창하게 날이 개어 132주년 창립기념식이 아름답고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 날의 기념식에는 많은 동창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혜성(58) 한국상담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과 정백현(71) 여성 가족부 장관님, 강경화(73)외교부 장관님이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을 받으시며 행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또 이화 장학재단의 김영자(57) 이사장님과 한현숙(66) 이화박물관장님이 그간의 모교를 위한 헌신에 대한 공로로 공로상을 받으셨으며, 이관이(68) 동창님을 비롯한 19분의 동창님들이 이화를 빛낸 상을 받으시는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남가주동창회의 최운봉(58) 동창님께서서는 서부 지역 이화 동창들의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신 공로로 동창회 봉사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동창님들의 이화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창립기념일에 맞춰 멀리 해외에서 참석해주신 많은 동창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이화 법인의 이영우 회장님께서 해외에서 오신 동창님들을 위한 철원지역 TOUR 프로그램을 계획하셔서 40여분의 해외 동창님들이 하루 동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투어에 참석하신 동창님들이 너

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 덕분에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화 법인과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역시 재상봉 동창님들의 적극적인 모금에 힘입어 이화 장학재단은 현재 1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사들의 연수, 연구 기금 지원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동창님들의 이화 사랑과 헌신적인 모금 활동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이화인이라는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창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율형 사립고 문제는 서울의 23개 자사고 연합회에서 행정소송과 시행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결과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되어 일단 올해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 정책이 모두 자사고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7만여 동창님들과 이화 법인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자율형 사립고 이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동창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모교 사랑과 우애로 하나 되는 남가주 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남가주 동창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8년 7월
이화여자고등학교교장 김혜정

거울, 정동 그리고 남가주에서



남가주 이화동창님들께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1954년 이후에 이화인은 3년 혹은 6년 동안 “거울”을 읽으며 성장했습니다.

- 나는 이화의 거울이다 -

거울은 사전적으로 1)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2)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화인은 거울이라는 렌즈로 비추어 주는 이화와 세상을 보고 거울이 보여주는 밝기로 세상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창립 132주년 기념 930호까지 발행인과 편집인 기자들이 바뀌고 표지가 채색으로 단장되며 내용도 다양해졌지만 첫 대면하는 이화의 상징 ‘교표·교훈·성경말씀’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받으면 무채색의 교표에 초록색을 입히고 자연스레 자유·사랑·평화를 저장하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교육관의 교과 과정임에도 목사님이나 성경선생님께서 성경구절을 억지로 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읽으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삶을 통한 이화의 교육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가르치심을 거울을 통하여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60년대 학생들은 감성이 풍부한 사춘기·청소년기에 신지식선생님께서 매회 실어주시는 “빨강머리 앤”을

읽고 또 읽으며 길버트가 언제 나타나나 꿈을 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 동기, 후배들을 노천극장에서뿐 아니라 지면으로 만나며 선생님들과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화의 문화가 소녀들을 이화인으로 자라나게 하였습니다.

남가주의 이화동창회가 반세기를 지내며 17호 남가주 거울을 발간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16호를 다시 열어 보며 동창님들의 소식과 여행기, 이런저런 행사, 군데 군데에서 찾아지는 사진 속 모습들이 낯설지 않음은 우리 모두 이화인이 분명함을 일깨워줍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활동들을 보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을 찬송하며 온몸으로 익힌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남가주의 이화인들은 정동의 거울을 통해 보고 알고 이해하며 거울로 삼았을 것이며, 이제는 남가주 거울을 보며 정동의 이화와 남가주와 세상을 보며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남가주 동창님들을 10월 보스턴 북미주동창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남가주거울 17호 발간을 축하하며, 남가주동창회 반세기의 큰 성장과 발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7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자형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화의 얼굴 “거울” 17호 발간을 아울러 축하합니다.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거울” 회보를 출판하신 남가주동창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해 거울회보를 통하여 북미주 동창님들의 network 역할을 해오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제8차 북미주 동창회 총회에 대한 광고를 한영숙 선배님께서 실어주신데 대해서 보스턴 동창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거울” 편집위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일년 끝내고 도미해서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미국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면 이화여고 동창회에서 따뜻하게 감싸주며 금방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게 되는 그런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화여고 동창회의 특징입니다.

이번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고, 배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제8차 총회를 준비해 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화 북미주 동창회에서 미래를 위한 여러 계획과 뜻을 가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또 전국 각 지부, (16 지부)를 연결해서 가깝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큰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스턴에서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북미주 동창회에서 곧 만나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남가주 동창회가 앞으로 반세기동안도 지속적으로 번성하시길 기원하며 동창회 창립 50주년과 17호 거울지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북미주 총동창회 회장 이경혜

남가주 동창회 거울지 2018년 제 17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점차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선후배 동창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금년으로 우리 남가주 동창회가 발족한 지 50년이 되어 Golden Anniversary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창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선 후배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가주동창회는 앞으로도 60주년, 70주년, 지속적인 발전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후원이사님들을 위한 감사의밤

Backyard Picnic with Live Jazz 행사가 있었습니다. 즐겁고 신바람나는 Live Jazz의 밤을 준비해주신 이해란 회장님 내외분과 72년 임원진 동창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울지 발간을 축하하며 수고하고 애쓰신 편집위원과 임원들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남가주 후원 이사장 이안나

거울 1954



조경숙 (57)



▲1950년대의 거울 표지 타이틀



▲1960년대의 거울 표지 타이틀



▲2010년대의 거울 표지 타이틀



▲2018년의 거울 표지 타이틀



▲거울 2주기 기념 삽화

동란후 한국은 여러가지로 변화가 많았다.

1950년 6.25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고 1.4 후퇴로 부산으로 정부가 이동하고나서 모든 기관이 임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교육기관은 1951년 봄에야 임시로 문을 열었다. 이화는 부산 영도에 미군이 지어준 천막촌에서 문을 열었고, 1952년에 서울 정동에서 이화의 본교는 겨우 문을 열었다. 그 큰 교정에 학생수는 한 300명 정도로 선생님도 몇 명 없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1953년에 정부가 환도함에 따라 이화 부산 교정도 서울로 옮겨졌다. 그러나 '서울반', '부산반'으로 학생들이 좀처럼 섞여지지 않았다.

당시 신봉조 교장선생님은 우리가 한 학교로 운영을 하려면 무슨 Symbol이 될 수 있는 Project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어 그 때 우리가 시작한 것이 노천극장을 짓는 것이었다. 모든 학생이 나란히 서서 벽돌작업을 시작했다. 전쟁중 폭격으로 무너진 교사는 헐어서 벽돌 하나 하나씩 줄을 서서 나르기도 했다.

다음은 전교 학생이 다 읽을 수 있는 주간 신문을 출판하여 모든 학교 소식을 알리기로 하였다. 이 Project를 시작하신 선생님은 박승훈, 오인영, 신지식 선생님이셨고 심부름을 하는 학생은 나왔다. 학교 신문 이름은 '거울' 신봉조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는 언제나 거울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자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이셨다.

첫째 문제는 인쇄였다. 그때는 인쇄소라는 것이 없었다. 신문사에서 이런 것을 받아줄 리가 없었고 작은 인쇄소를 찾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마포 형무소에서 형무원들이 작은 인쇄소를 차려서 밖에 청부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거울의 첫 부부터 거의 2-3년 동안 마포 형무소에서 찍어왔다. 대개 편집이 마감이 되면 우선 그 원고를 들고 마포 형무소를 가야 했다. 정동에서 걸어서 서대문 로타리에서 전차를 타고 내려서 한참 걸어가면 형무소 벽돌담이 있다. 정문에서 수위에게 "이화에서 왔어요" 하면 인쇄소쪽으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가족 면회실을 지나서 복도를 걸어가면서 어떤 때는 통곡하는 울음소리도 들어가면서 원고를 전하면 그 책임자는 머리를 뺨뺨 꺾고 죄수복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있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에 교정을 보러 가면, 오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고치고, 다 되었다고 다시 주고 나면 며칠 후에 그 신문은 손수레에 실려서 정동 수위실에 배달되었다.

'거울'이 나오는 날은 모든 학생들이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반 대표가 받아다가 나누어 주었다. 창간 후에는 Schedule이 없이 준비되는 대로 출판이 되었으나 나중엔 주일마다 나오게 되었다.

1954년에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미국 남가주 동창회에서 '거울' 이름을 그대로 살려 출판을 한다니 '거울'이 우리 이화의 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도 나는 그 때 그 마포행 전차를 타고 형무소를 다닐 때의 그 추운 바람이 기억에 생생하다…….



남가주 동창회 50년을 돌아보며

July 28, 2018

사회: 백경희(72)

참석자: 임순희(55), 한영숙(56), 박희경(56), 이안나(57), 최한희(64), 박영신(64), 전애린(65), 김영희(66)

기 록: 이해란(72), 백경희(72), 이대경(72), 김경덕(72), 박영신(72), 한중숙(72)

사회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 주말에 이렇게 귀한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이화 여자 중 고등학교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과거 초창기때 동창회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선배님들, 또 오랜시간 동안 동창회를 지켜보시고 참여해서, 열정과 희생으로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배님들을 모시고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동창회를 개척하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배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50년도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지나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개척한다는 것은 항상 어렵고 난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초창기 창립 당시에 창립멤버로 참여하셨던 분이나 또는 당시 애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족 동기, 장소, 처음 몇 명이 모여 시작했는지 총 회원수는 몇 명 정도였는지 등등...

한영숙 1968년 9월28일에 처음 창립되어 올해로 50년이 되는데, 그 당시 고덕자(57) 동창에 의하면, 조중하 교감 선생님이 이곳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셔서 몇몇 동창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곳 남가주에도 동창회를 만드는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으로 발족하게 되었고 1대 회장에 방경자(54)선배가 선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최한희 내가 미국 올 때가 1970년인데, 친척이 이화 졸업생인 관계로 동창 모임이 있다하여 참석을 했는데 한 10여명 정

도 모여 식사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사회, 총회, 송년모임 등의 체계가 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고덕자, 이미화, 이명은, 한동숙, 서지혜 등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장은 고덕자(57) 선배였고, 연말이면 모여서 춤도 추며 송년 모임을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박영신⁽⁶⁴⁾ 1991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동창 가족 200여명과 자녀들 20여명이 모여 월셔 그랜드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큰 호텔에서 한 동창 파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영숙 나는 1995년 말에 Washington DC에서 LA로 이사왔는데, 그당시 김보영(63)회장이 동창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던 Washington DC 동창회에 비해 아주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김보영 회장이 열심히 기 모임들도 찾아가고, 멀리 San Diego까지도 가서 Fundraising도 잘하고 호텔에서 연말 파티도 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전애린 1982년에 미국에 왔을 때 동창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신봉조 교장선생님의 소천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동기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동창회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기회에서 김영주, 전서경이 전체 동창회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자연히 저희 동기 30주년, 35주년 행사등을 맡아 하면서 저도 동창회에 Involve를 하게 됐지요. 그러다 2002년도에 이사장이셨던 김보영 선배가 우리 기가 동창회를 맡을 차례라고 하셔서 제가 회장을 하게 됐지만 김영주와 전서경이 늘 함께 했습니다. 다른 기보다는 무척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2002년 봄에 김영주 동문 집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이사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사회와 약간의 마찰이 있어 그해의 연말 파티가 취소되는 등 본국에서까지 염려할 정도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부에서 회장을 마치고 LA로 오신 한영숙 선배님께서, 다시는 회장을 할

일이 없으실 줄 알았다고 하셨지만, 어려운 동창회를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한영숙 회장님이 애쓰셔서 동창회가 정상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한영숙 회장님의 인품에 반해서 회계로 동창회 일을 하던 중, 차기 회장으로 추천이 되어 2005-2006년도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동창 회장직을 맡아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영숙 선배님을 비롯해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덕분에 2년의 임기를 무리없이 마친 것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자 요즘은 우리가 High Tech시대에 살고 있어, 서로 연락하기도 전보다 훨씬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어떻게 회원수를 파악하셨으며, 때로는 한국에 있는 본교와도 연락할 일이 있으셨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으셨는지요.

최한희 그당시는 특별히 연락할 일도 많이 없었고, Mail과 전화로 주로 했고, 급하면 비행기 타고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한영숙 한국하고 연락을 할 때는 주로 Registered Mail을 많이 이용했어요.

이안나 행사가 있으면 신문 광고로 했는데, 예약없이 광고를 보고 오시는 동창들이 있어서 어떤 해는 20여명이 초과되어 음식이 모자라서 난감한 적도 있었어요.

전애린 우리 때는 기모임이 꽤 활성화되어 기대표를 통해 연락을 주로 했습니다.

최한희 2000년인가 2001년에 이희호 영부인이 방문했을 때도 기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후원금을 모은 생각이 납니다.

사회자 동창회 회칙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박영신⁽⁶⁴⁾ 이화 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회칙은 거의 처음부터 존재했었고 1990년까지는 동창회만 있고 이사회는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1991년에 조직이 되어 회칙에 추가 사항을 올렸고 1회 이사장에 임정빈(51) 동창이 1년을 하시고 2회 이희성(55) 이사장이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최한희 2003년 한영숙선배님이 회장하실 때인데, 동창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운영에 참여하는 영리단체와 달리 후원이사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여 회칙을 보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제가 김찬희 박사님을 모시고 후원 이사회에서 이사대표를 실행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확인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회칙이 오늘까지 정리, 발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초창기에는 모임 형태가 지금과는 어떻게 달랐는지요?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 였나요?

최한희 처음엔 친목형태로 한 두달에 한번 식당이나 아니면 동창 중에 집을 OPEN 하면 모이다가 연말파티를 시작하면서, 총회는 연말모임에 했었고, 한 20여년 전부터 5월에는 개교기념 예배로 모였습니다.

전애린 2000년 부터 5월에 총회를 열기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혜란 5월로 총회가 바뀌어서 여러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총회에서 차기 회장선출을 하는데, 5월달에 선출되면, 연말에 선출되어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반 년 정도 여유를 두고 차기회장이 현 회장단과 같이 동창회 일을 익힐 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거울지를 처음 제작한 해는 언제이며 누가 시작을 하셨나요? 거울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최한희 전애린 동창이 회장으로 있을 때 거울지를 내기로 하고 그 당시 총무였던 김광숙(68) 동창을 책임자로 2002년에 거울지를 발간하기로 하여 1호가 2002년 5월에 나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애린 김광숙(68)총무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서 2002년에 거울지 창간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동창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호 거울지 발간이 거의 포기 상태에 있을 때, 박경주(70) 총무가 거울지 발간을 통해 동창회를 이어가야한다는 뜻을 밝혀 거울지를 발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정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회장단의 기부를 시작으로, 고맙게도 노현숙 동기가 1000불을 냈고, 그 소식을 들으신 한영숙, 최한희등 선배님들이 쾌척하시고 그 외 여러 동창들의 십시일반으로 3천5백불을 모금하여 박경주(70) 총무 책임 하에 거울지 2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거울지와 동창회가 기사 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거울지 창간호부터 16부를 모두 소장하고 계신 동창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전애린 김광숙 동창이 창간호부터 모두 보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영숙 나도 다 보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찾아 볼게요.

김경덕 혹시 있으시면 기증해 주셔서 동창회 문서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동창회와 합창단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창단에 관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 계시나요?

박영신⁽⁶⁴⁾ 합창단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1991년이며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몇 몇 선배님들과 동창들의 열망으로 합창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동창 회원수가 총 500

명 정도였는데, 일일이 500여명의 동창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50여분이 합창단을 조직하면 나오겠다고 하셔서 아주 고무된 상태에서 합창단을 조직했고, 첫 모임에는 25명정도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화와 예고 음악선생님이셨던 이우근선생님을 지휘자로, 또 이화여고 재학시 노천강당 예배때 반주를 하던 김상희(65)동창을 반주자로 모시고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첫 연주를 했습니다. 초대 단장으로는 정현옥(60)동창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1996년까지 하시고 2대 단장으로 임순희(55)동창, 3대는 박희경(56)동창등 여러 단장님들의 수고로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사회에서 합창단을 없애자고 하여, 임순희 단장님과 함께 합창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박희경 합창단 창단 당시에는 동창회에서 재정보조가 없을 때라서 1992년에 창단멤버중 임순희(55), 김정은(56), 박희경(56), 주영희(57), 정현옥(60), 민방임(62) 등, 여섯 명이 100불씩 내어 총 600불의 합창부 최초 재정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영희 동창이 재무를 맡았었습니다.

이안나 저는 동창회보다는 합창단에 더 많이 Involve 했었습니다. 1991년 9월 박영신회장 당시 이우근 선생님을 모시고 창단이 되어 그 다음해인 1992년11월에 제1회 음악회를 나사렛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본교 개교 110주년에 제1회 연합합창제가 1996년 5월 30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어서 그때 33불짜리 드레스를 들고 서울 첫 나들이를 했었습니다.

제2회 연합 합창제는 2000년 4월 30일 LA 이벨극장에서 옛 스승 임원식, 이남수 선생님을 모시고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제3회는 뉴욕 Lincoln Center에서 2002년 6월22일에 있었고 제4회는 2004년 5월 31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5회는 2006년 5월 8일 LA Cerritos Performing Art Center에서, 6회는 2009년 3월 19일 뉴욕 Lincoln Center에서, 7회는 모교 개교 125주년 기념 음악회를 2011년 6월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었고, 그해에 Ohio Cleveland에서 북미주 동창회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엔 Philadelphia에서, 2014년 Hawaii 에서는 북미주 동창회 10주년 기념 음악제를, 2016년 Toronto 에서, 금년 2018년엔 10월에 열릴 Boston에서 북미주

동창회 음악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합창단 창단 25주년을 맞이하여 정애수(73)단장과 임원들이 그동안 역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 고문을 초청하여 사진 전시, 단복 Fashion Show, 근속 공로단원 표창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념행사를 가졌었습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LA지역 Mission School 동문 합창제는 금년에 17회가 되었습니다.

전애린 2009년 경에 합창단이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로 합치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지만 나중에 동창합창단이 동창회 산하로 들어오면서 동창회와 합창단이 정상화 된 것 같아요. 2010년 김병화(58) 회장님때 동창회 기금을 많이 모아 기금을 한 6만불을 확보했었습니다. 그중에 2만불을 합창단에 Seed Money로 주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후에 조수미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창합창단과 동창회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영숙 조수미 공연을 준비하면서 Disney Hall 대여, 조수미씨 섭외하는데 드는 비용 등으로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그래도 그 Seed Money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10만불 모금하고, Ticket 판매 등으로 Seed Money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장학금 10만불을 한국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창회가 좀 더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순희 동창합창단 단장으로 또 합창 단원의 한사람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합창에 참석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고 낮은 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합창단에 나와 노래하는 것이 최고의 낙이요 행복입니다. 동창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이런 행복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북미주 동창회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한영숙 2003년 회장 임기 당시 추수감사절 즈음 연말행사 준비를 하고있을 때 정창용 교장선생님과 연락이 되어 김숙희 총동창회장님이 12월 뉴욕 동창회 참석후 LA동창회를 방문 하셨을때 북미주 동창회를 만들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김숙희 회장님이 신봉조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교가 강해지려면 동창회가 잘 되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체동창의 4분의 1이 외국에 나와있고 그 중 반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시며 북미주 동창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 발기총회를 하고 2005년에 제가 1대 회장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각 지역 동창회에서 돌아가며 2년씩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된 일을 위해 Mary Scranton 기금모금 운동을 하기로 하고 일일차집, 화랑등으로 열심히 모금해 30만불을 보냈습니다. 그때 최한희 후배가 모금위원장으로 수고했지요.

최한희 그때 참 고마웠던건, 전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열심히들 기금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사회자 50년의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텐데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동창회가 나아가길이라든가 또 후배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후배들이 선배님들께 질문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대경 회장과 회장단의 2년 연임제는 언제부터 생겼고, 회비가 30불로 정해진건 언제인가요?

한영숙 2년 연임제나 회비는 동창회 설립 시작 때부터 그렇게 정해 내려온 것 같아요.

박영신⁽⁶⁴⁾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회칙에 있었습니다.

김영희 2년 연임제는 적당한 것 같고 회비는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대로 가야할 것 같아요.

이혜란 선배님들께서 동창회일을 하시며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애린 2009년 기존합창단이 동문 합창단과 이화코랄로 양분되어 있을 때, 한국에 방문하여, 총 동창회장과 실행위원들 모임에서 남가주 동창회가 동창합창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등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 그당시 합창단의 잡음을 어느정도 무마하고 무사히 좋은 모습으로 예술의 전당 공연을 마친 걸로 압니다.

최한희 저는 Scranton 장학금 모금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United Methodist Women이라는 세계에서 여성 모임중 가장 역사가 깊고 회원이 많은 감리교 여선교회입니다. 물론 이화를 세운 Scranton여사를 한국으로 파송한 기관이구요. 그때 저는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활동하면서 UMW의 역사를 배웠는데 우리들은 모두 Scranton여사를 한국에 파송한 미 감리교 여선교회에 빛진 자들이며 이제는 조금이라도 그 빛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



로 그일을 시작하였고 많은 동창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어진 30만불이라는 기금이 모였습니다. 현재 한국, 서울에 United Methodist Women의 산하기관으로 Scranton Center가 세워지고 저희의 기금이 그곳에서 동남아시아 여성 leader들을 세우는데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화 73년 졸업생인 김혜선 목사님께서 현재 그곳 책임자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영숙 동창회 일을 맡아 하면서 여러가지 보람된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었던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할 수 있어 행복했고 감사할 따름이지요.

김경덕 동창회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영숙 사실 동창회의 미래가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72기가 동창회를 맡고 있는데 76기가 끝나면 다시 64기로 올라가기도 무리인 것 같고(웃음).... 그 때가 되면 64기 나이가 거의 80이예요. 76기 이후는 기별 모임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이는 동창수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 때 가서는 한 기로 회장단을 묶어두지 말고 회장을 세워 임원진을 여러 기에서 세우면 더 많은기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혜란 동창회가 그냥 모여 회의하고 교제만 하는 것보다 뭔가 의미있는 목적을 중심에 두는 모임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저희가 지구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베희 시장도 그 한 예가 되겠지요. 고맙게도 차기 회장단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중숙 어느 모임이나, 특히 동창모임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후배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해야하고, 존경심을 바탕으로 의논도 하고 충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한희 물론 오늘날의 동창회가 있기까지 여러가지 좋은일도 많았고 잡음이나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슨일이든 열심히 하다보면 가끔 열정이 지나쳐 잡음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열정과 열심은 높이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일이든지 본질에서 벗어나면 부작용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동창회 일이라는 것이 완전 봉사하는 일이니 만큼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일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50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오늘까지 동창회를 앞에서 열정으로, 또는 뒤에서 말없이 이끌어 오신 많은 선배님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합창단 단일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고, 열정이 너무 넘쳐 때로는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발전하는데 한 과정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창회를 잘 가꿔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유익하고 건설적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동창회 연혁을 만들어 보는것도 좋지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동창회 창립50주년 기념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윤경 (69)



오래전 어느날 나는 Recycling Center에 있었다.
 “Hey, do you want a cigarette?”
 “Hey, do you want a cigarette?”
 높고 추래해 보이는 까만 아저씨가 담배를 들어 보이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며 담배를 권하고 있었다. 그들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온 친구인지 아님 그저 아는 사람들인지.
 나는 지금의 나의 보금자리로 옮긴 지가 14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처음 이사왔을 때는 아들이랑 딸이랑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으나, 그동안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 방을 비워 놓기도 그렇고 짐세도 그렇고 하여 지금은 Share House 로 자연스레 바뀌어 방이 빌 때마다 방을 share 하며 살고있다.
 뒷방 아줌마! 그녀는 나와 거의 8년째 같이 살고 있으며 건강식 쿠키와 빵을 구워 판다. 근데 그 아줌마는 양동이를 신발장 옆에 놔두고 각종 병과 플라스틱과 강통들을 모아 짝 차지면 교회의 장로님께 갖다 드리고 그것을 모아 팔아 교회 잡비로 쓴다고 한다. 우리집에서 나오는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 양동이로 들어간다. 나는 뒷방 아줌마 덕분에 어느새인지 친환경주의자가 되어져 있었네.
 어느날인가 아들의 방을 들여다 본 나는 놀라고 말았다. 거기엔 두개의 쓰레기 봉투에 넘치도록 쌓여있는 플라스틱병과 강통들이 있었다.
 다음 나의 생각은 아~~ 이걸 들고 가봐야지.
 늘 궁금했던 일!
 가끔 내 눈에 들어왔던 장면들이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들과 커다란 비닐 봉투 가득가득 빈병들과 강통들을 담아 손수레에 싣고 또 실어 손수레가 싫다고 떼 부릴 만큼 이곳 저곳에 매달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들은 저렇게 냄새나는 쓰레기통 속을 뒤져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저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지구의 정화를 위해 얼마나 크게 공헌하고 있는 줄 알고나 있을까?
 단지 생계를 위해 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몫

을 찾아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걸까라 생각하지만 나름 긍지를 갖고 저들이 살고 있기 바라는 나의 마음이 빛나간 추측이 아니길 바라면서 열린 컴퓨터 앞으로 가서 강통을 사주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았다. 캔스레 신이 났다. 빨리 가봐야지. 주소를 확인하고 지도 위의 위치를 확인하고 두개의 쓰레기 봉투를 자동차 뒤 트렁크에 싣고 집을 나섰다.
 근데 뭐야 이걸, 이런 주소가 없잖아. 워싱턴 볼르버드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사핑몰 속을 다 돌며 찾았지만 끝내는 못 찾았네. 할 수 없이 Recycling Center에 전화를 걸었고 마켓 옆의 공간에 작은 박스 하나와 커다란 콘테이너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아하! 이런곳이 바로 4040 Washington Blvd. 란 주소를 가진 빈병과 강통을 돈으로 바꾸어 주는 Recycling Center이구나.
 지동차를 세우고 뒷 트렁크를 열어 쓰레기봉투 2개를 꺼내어 놓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바로 이 누추한 옷차림의 아저씨였다. 담배를 들어 보이며 근처의 사람에게 담배 피겠냐고 묻고 있는 이 아저씨!
 이 담배를 권하는 추래해 보이는 아저씨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 소리의 메아리가 나의 마음에 부딪치고 있었다.
 빈병과 강통을 주워 마련한 것이기에 그의 담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따스하고 정겨웁게 나의 마음에 울렸고 그의 나눔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나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오늘 내가 여기 오고싶은 마음을 주셨던 이유가. 그의 담배 한가치라도 나누고자하는 따스하고 정겨운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저 스쳐버릴 저 남루한 늙은이의 담배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으로 부터 이 감동을 주시기 위함이었나보다. 나누는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절대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한톨의 콩이라도 나누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나누는 마음!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마음!
 플라스틱병과 빈 강통을 주워 모으는 그 너머에 있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을 아름답게 정화시키는 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쓰레기 품목	분해 기간	쓰레기 품목	분해 기간	쓰레기 품목	분해 기간
종이	5개월	가죽구두	25-40년	일회용컵	20년이상
오렌지껍질	6개월	알루미늄	80-100년	플라스틱병	100년이상
우유팩	5년	알루미늄캔	500년이상	양철캔	100년
담배필터	10-12년	일회용기저귀	100년이상	나무젓가락	20년
플라스틱	10-12년	스티로폴	500년이상	칫솔	100년이상

내가 버린 플라스틱, 참치·조개가 먹고 내가 다시 먹는다

지난 5월 한국 방문 중 우연히 접한 조선일보 환경문제 특집 기사를 남가주 거울지에 낼 수 있도록 흔쾌히 자료를 제공해 주신 조선일보 사회부 박은호 차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이혜란(72)

플라스틱의 반격

‘플라스틱 먹이사슬’의 끝에 인간이 있다. 세상에 등장한 지 150년 만에 일상생활을 점령하더니, 이제 몸속까지 들어와 우리를 위협하는 게 플라스틱이다. 유엔 환경계획이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만 최소 480만t에서 최대 1270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이 플라스틱들은 해류와 태양 자외선에 의해 잘게 쪼개져 ‘미세 플라스틱(지름 5mm 미만)’으로 변한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 등이 먹으면 먹이사슬을 거쳐 결국 사람 체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인천바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 세계 2위

미세 플라스틱은 지구의 모든 바다에 존재한다. 해양환경보호전문가그룹(GESAMP)은 미세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지역적으로 밀도 차이가 있을 뿐 조사가 이뤄진 모든 곳에 플라스틱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태평양과 지중해, 북대서양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바닷속 플랑크톤과 물고기, 홍합, 굴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지중해 그래’ ‘캘리포니아 연어’ ‘북해도 홍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16년 기준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으로 미국, 일본을 제치고 1위였다. 그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 밥상으로 돌아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 패류 4종을 검사해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다. 패류 속살 100g

한 해 500만t 이상 바다에 버려져 어패류 등 섭취 통해 인체로 유입

경기·인천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1㎡당 농도 세계에서 둘째로 높아

소화기관 통해 몸밖 배출되지만 중금속 등 흡착뎀 악영향 줄 수도

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바지락에서 34개, 담치에서 12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 이 패류 4종을 통한 국민 1인당 연간 미세 플라스틱 섭취 추정량은 212개라고 밝혔다.

각종 연구 결과와 논문을 보면 한국인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월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인천 앞바다, 경기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세계에서 둘째로 높았다. 1㎡당 평균 미세 플라스틱 개수는 1만~10만 개 사이일 것으로 추정됐다. 낙동강 하구는 셋째로 높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수돗물, 호흡으로도 인체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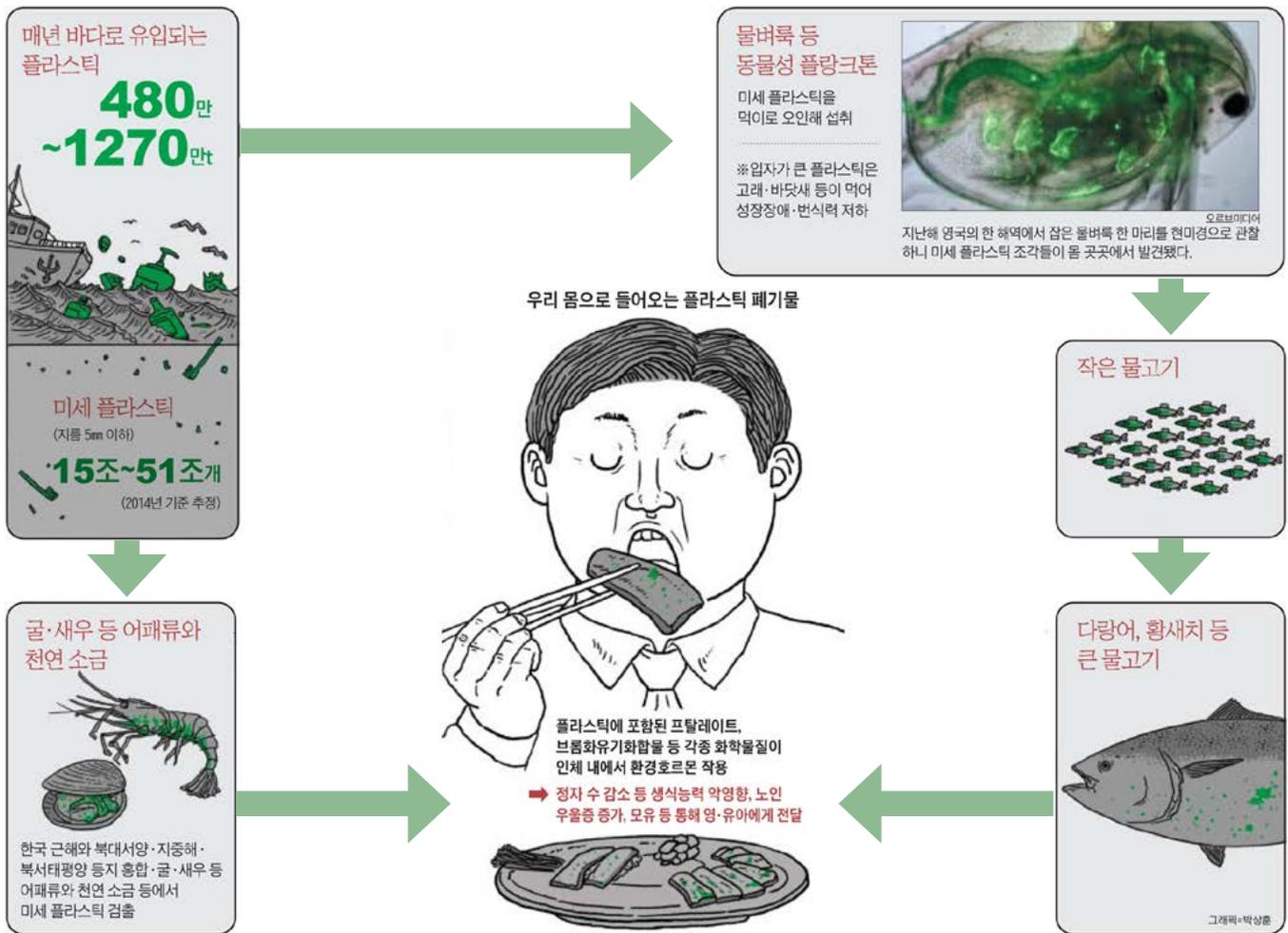
지난 2015년 독일 괴테대 연구진은 종이컵을 덮는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을 가로·세로 1cm 크기로 잘라 물 위에 띄우고 태양 자외선에 노출시켰다. 8주가 지나자 평균 22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가 1L당 1억 개 이상 발생했다. 플랑크톤 같은 작은 생물도 충분히 삼킬 수 있고, 생선이 아가미로도 흡수할 수 있는 크기다. 하지만

어느 정도 깊이, 얼마만큼 퍼졌는지 규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호흡기를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로 들어온다. 런던 킹스칼리지 프랭크 켈리 교수팀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 “하수 슬러지로 만든 비료가 건조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섞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의 연구에선 공기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검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만약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들이마실 수 있다면 그 노출 정도는 해산물 섭취를 통한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수돗물도 안전하지 않다. 지난 9월 미국 독립 언론단체 ‘오르브미디어’는 “14개국 159개 수돗물 샘플의 83%에서 L당 평균 4.3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10월 자체 조사한 결과, 24개 정수장 중 3개의 정수장에서 L당 0.2~0.6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전체 평균은 1L당 0.05개였다. 당시 미세 플라스틱 유입 경로가 명확히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팀은 정수를 마친 뒤 정수지에 담긴 물에 대기를 통해 날아온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15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소화기관을 따라 몸 밖으로 배출되고, 그 미만 크기의 경우 0.3% 정도가 몸 안에 흡수된다고 한다. 플라스틱에 각종 첨가제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흡착됐을 경우, 단백질·DNA 세포들을 해치거나 파괴할 수 있다. 손호영·허상우 기자



크기 2mm 물벼룩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파고들어

나노 크기 조각은 세포벽 통과 생선살 조직까지 침투 가능

바다로 흘러들어 간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돌고 돌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UN에서 해양환경전문가그룹(GESAMP)이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연평균 미세 플라스틱 1만1000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 언론기관 오르브미디어(OrbMedia)는 지난해 영국의 남쪽 해안에 있는 엑서터(Exeter) 지방 해역에서 잡은 물벼룩 한 마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플라스틱의 일종

인 폴리스티렌(PS) 조각들이 물벼룩의 위장과 더듬이, 가슴 부위에 들어가 있었다. 물벼룩의 몸길이는 1.2~2.5mm 정도. 그 몸속에 50nm(나노미터·10억분의 1m)도 안 되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곳곳에 박힌 것이다.

물벼룩은 동물플랑크톤의 한 종류다. 플랑크톤은 바다 표면을 떠다니는 부유 생물로, 바다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이다. 특히 알에서 막 부화한 치어들이 물벼룩을 먹고 성장한다. 물벼룩과 같은 동물플랑크톤의 체내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은 상위 포식자인 홍합, 굴, 물고기 등 대부분 바다 생물의 몸속으로 옮겨 간다.

홍합·굴·새우 등처럼 통째로 먹는 수산물과 달리 물고기는 대부분 내장을 제

거하고 먹기 때문에 물고기 내장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 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GESAMP는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벽을 통과해 내장 이외의 조직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했다.

크기가 수 cm에 달하는 굵은 플라스틱도 문제다. 일부 고래나 바닷새 등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을 경우 성장 장애나 번식력 저하, 폐사 등을 일으킨다. 굵은 플라스틱은 거친 해류나 태양 자외선 등으로 마모되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엔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어느 쪽이든 바다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허상우 기자

“식료품 담아갈 그릇 가져오라”... 유럽·美서 포장재 없는 가게 확산

재활용품 발생 자체를 줄이는 ‘프리사이클링’ 국내서도 관심

독일 베를린의 슈퍼마켓 ‘오리기날 운페어파트’에는 식료품을 담아 파는 ‘속비날’이 없다. 대신 소비자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용기에 원하는 만큼 제품을 담아간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별도로 용기를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가게 창업자들은 시민 4000명에게 목표액 4만5000유로보다 7만유로(22일 환율 기준 8940만원)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 2014년 이 가게를 열었다. 세계 각지에서 포장재를 안 쓰는 가게들이 늘고 있다. ‘오리기날 운페어파트’를 시작으로 먼저 유럽으로



오리기날 운페어파트

최초의 ‘포장 없는 가게’로 알려진 독일의 ‘오리기날 운페어파트’. 속비날 등 포장재가 없어 소비자들은 용기를 갖고 와 식료품을 담아간다.

퍼졌다. 현재는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 이어 미국 뉴욕에서도 포장 없는 가게가 문을 열었다. 환경 보호를 위해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포장재 등 폐기물을 되도록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것을 ‘프리사

이클링(Pre-cycling)’이라 한다. 재활용품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개선해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Up-cycling)’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 운동이다. 100% 재활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 대란’ 이후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숲 근처에 있는 프리사이클링 가게 ‘더 피커’도 지난달 재활용품 대란 이후 손님이 20% 정도 늘었다고 한다. 송강호(30)·홍지선(32) 공동대표는 “소비 단계에서부터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고 했다. 허상우 기자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빨대부터 쓰지 마세요”

페플라стик 줄이는 5가지 방법 영국·캐나다 등 빨대 사용 제한 佛식당선 일회용 식기 일부 금지

국내 1인당 비닐봉지 소비량은 연 420개에 달한다. 1993년부터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덴마크의 경우 1인당 비닐봉지 소비량은 4개 수준이다. 우선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지참하면 된다.

커피 전문점을 이용할 때는 텀블러가 없더라도 빨대를 사용하지 말자. 플라스틱 빨대는 음식물이 닿는 면적이 넓고 입구가 좁아 세척이 어렵다. 전량 버려진다. 우리나라의 빨대 사용량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컵 폐기량은 2015년 기준 연 257

일상 속에서 페플라стик 문제를 해결하는 다섯 가지 방법

1.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개인 물병을 사용한다
4.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하지 않는다
5.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는다



억 개에 달한다. 이때 절반가량만 빨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130억 개가 버려진다. 영국과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올해 초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퇴치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도 되도록 자체 하자. 호주 번다논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등은 병물 생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비누, 샴푸 등 생필품을 살 때는 개별 포장된 제품보다 덜어서 쓸 수 있는 리필

형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 식기 등의 사용도 줄일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 식당 등에서 일회용 식기와 접시 사용을 일부 금지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무단 투기하지 말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마구 버리면 환경을 망치는 폐기물이 된다. 국제 비영리기구인 해양정화협회가 지난 30년간 바다 청소를 실시한 결과 전 세계 바다와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3%는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특히 플라스틱 병과 비닐랩, 비닐봉지가 많았다. 김효인 기자

(특별취재팀)

박은호 차장, 채성진·김정훈·김효인·이동휘·손호영·권선미·허상우 기자

Beyond 벼룩시장



이혜란 (7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량생산의 서막을 알리며 질풍노도로 인류역사에 등장한 1차 산업혁명과 함께 260여년 전에 이미 대량소비, 대량폐기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진행 중인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인간이 무심히 저지른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답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구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선택이 전세계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공장들을 일 초라도 덜 돌아가게 하고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크게 생각하고 각자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작은 실천을 한다는 뜻에서 우리 남가주 동창회에서 지난 이 년 동안 열어온 '벼룩시장'은 극히 작은 제스처일 뿐입니다. 이제는 벼룩시장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더 멀리, 동시에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각자의 생활반경 안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삶의 현장인 이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 선택이 생명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향할 것인지는 오직 각자의 몫입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소소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이 지구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길임을 깊이 심사숙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의 생활화와 더불어 감히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뒷마당에 가능한 한 유실수와 텃밭을 가꾸어 농업의 공장화를 줄이고
- 식재료 찌꺼기는 쓰레기통이 아닌 뒷뜰에 모아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 한 번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이나 식기를 멀리하고
- 우리의 식탁에서 모든 종류의 육류나 해물 수요를 과감하게 줄

여 숲과 해양 생태계 교란을 막고

- 무엇보다도 동창회 모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크고 작은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일회용 용기 사용을 금할까(줄일까가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독교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생각이 짧던 시절에는 이 말이 도통 무슨 뜻이며 가능하거나 한 말인가 생각했지만 이제 그 숨은 엄청난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2017/18 두 해 동안 10번에 걸쳐 모은 벼룩시장 수익금으로 남가주 지역 비영리 환경보호단체를 후원할 수 있게 되고 매년 지원해오던 장학/선교 후원도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반가운 소식은 동창 합창단에서도 올 해부터 매주 토요일 연습 때마다 벼룩시장을 열어 수익금으로 보스톤에서 열린 북미주 동창회 총회 여행 경비에 보태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순간 지구환경을 위해 깨어서 실천하는 우리 이화인, '생명지킴'이 목적이 되는 살아 움직이는 우리 동창회가 되기를, 또한 동창님들 한 분 한 분이 속한 각각의 공동체에도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말끔히 치유된 미래의 지구환경을 상상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2017 / 2018 벼룩시장 보고서

▪ 01/21/2017	\$ 416.00
▪ 03/11/2017	\$1,000.00
▪ 05/06/2017	\$1,192.00
▪ 08/26/2017	\$ 330.00
▪ 12/02/2017	\$ 762.00
▪ 01/27/2018	\$ 497.00
▪ 03/03/2018	\$ 600.00
▪ 05/05/2018	\$1,110.50
▪ 08/04/2018	\$ 390.25
▪ 12/01/2018	미정
❖10/30/2018 현재 합계 (송년모임 제외)	\$6298.25



오늘도 그림이 내게로 온다

화가 안영일의 예술과 삶

안영일은 1934년 개성에서 화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으며 이 무렵부터 타고난 재능과 감성으로 천재 소년화가라 불리면서 학교에서 개인전이 열리기도 했다. 10세때 귀국해 청주사범 부속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시절 제2회 국전에서 특선했으나 나이가 밝혀져 입선으로 내려진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대학 졸업 후 이화여고와 서울 사대부고에서 가르치다가 곧 전업작가로 나섰고 1960년대 한국에서 작품만 팔아서도 생활할 수 있었던 극소수의 화가 중 한 명이었다. 1966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캘리포니아의 태양과 바다, 풍요로운 자연과 자유 넘치는 대기를 자양분으로 더 깊고 다양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으며 우수 갤러리의 전속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주류화단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던 무렵 뜻하지 않은 불운을 만나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좌절의 나날 10여년간 매일 바다낚시에 나가 물과 파도를 응시한 것이 훗날 '물' 시리즈가 되어 화폭을 채우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펼쳐진 '물'의 향연은 2015년 이후에야 미국과 한국에서 그 작품세계가 재조명되면서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2017년 굴지의 LA 카운티 뮤지엄(LACMA)에서

개인전이 열림으로서 화가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80여년의 화가 인생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약 30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장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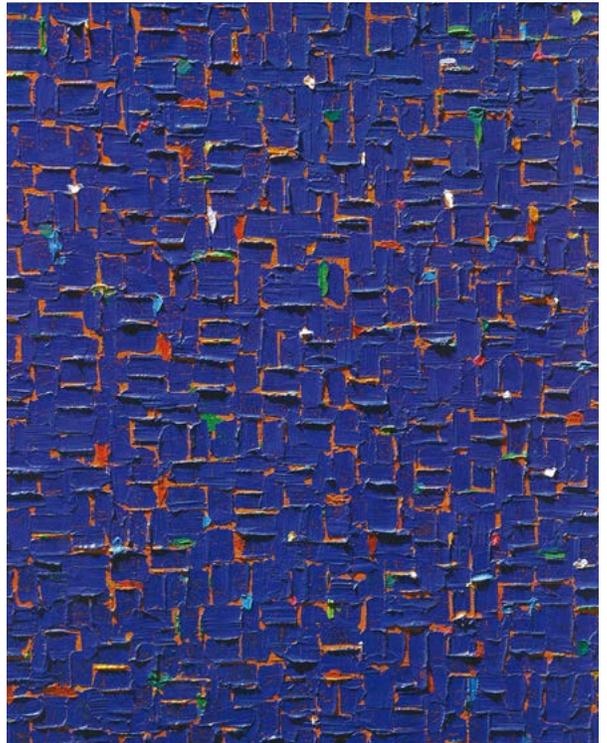
안영일의 '물' 시리즈에서 가장 경탄스러운 것은 세밀한 기하학적 테크닉과 장엄한 물의 흐름 사이에서 느껴지는 역동적 긴장감이다. 물은 방대하고 풍성하며 신비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를 나타낸다. 작품마다 물에 대한 그의 해석이 모두 다르고 강렬한 것은 그것이 깊은 경험의 원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토양과 감정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스티븐 리틀 <LACMA 현대미술부 부장 겸 큐레이터>

안영일의 그림에는 빛의 출렁임과 파동이 육화되어 있다. 작은 색의 무수한 파편들로 이루어진 그의 그림은 바라보는 이의 망막을 자극한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고, 정지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우주의 철리를 안영일의 그림은 하나의 화면에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윤진섭 <미술평론가>



WATER ALB 2014, oil on canvas, 72"x60"



WATER SM-95C 2009, oil on canvas, 56"x50"



Water Music (detail) 2007, oil on ricepaper mounted on canvas, 90"x80"

올 해 초에 이화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안영일 선생님의 Long Beach Art Museum과 LACMA (LA County Museum of Art)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 초대전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또한 이화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에 거울지면을 통해 동창님들께 알릴 기회가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리: 이혜란 (72)>



홍연숙 (55)

멕시코 대학에 한국어반 창설 후 1년을 돌아보며

2017 창설 이야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년 이맘 때 <거울지>에 나간 멕시코 한국어반 원고 내용을 요약한다.)

2017년 가을학기에 미국 California 주, 바로 아래 접경하고 있는 멕시코 티화나(Tijuana)시에 한 명문대학인 Universidad Autonoma de Baja California (이하 UABC)에 우여곡절 끝에 한국어 강좌가 창설되었다. 이 한국어반의 창설 동기는 실로 특이했다. 약 30년 전에 미국 대학(U Penn)에 한국어 강좌를 신설해준 경험이 있는 필자는 2017년 3월 22일, 난데 없이 멕시코의 “에네켄 한인 후손 후원단체”의 K회장의 방문을 받는다. 대학에서 은퇴하고 LA교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터여서, UABC 대학에 한국어반을 창설할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달라는 그의 요청을 받았을 때, 필자는 점잖게 거절할 참이었다. 그런데 K 회장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말았다.

사연인 즉, 1905년 4월, 조선 말기에 영국의 악덕 기업인이 중국과 일본에서 노동자를 동원하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가난한 우리 백성에게 접근하여, “4년만 일하면 큰 돈을 벌어 금의환향한다”고 속여 1033명을 배에 태우고 멕시코로 간 것이다. 도착해 보니 기대와는 달리 남자는 에네켄 (용설란이라는 알로에의 일종) 농장에서 사람 키보다 큰 용설란 잎을 하루에 3000~5000장을 베야 하는 중노동자, 아니,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아무튼 채찍을 맞으며 4년을 채웠지만, 돈을 주지 않아 기다리는 중에 1910년 조국인 조선은 일제하에 나라를 잃게 된다. 돌아갈 고국도 없게 된 우리 불쌍한 선조들은 땅을 치고 울며 멕시코에 남아 인간 최하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 어떤 이는 쿠바로 가고, 어떤 이는 과테말라로 가고... 필자는 부끄럽지만, 그 때까지 에네켄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도 티화나 등 멕시코에 3만명이나 살고 있으며, 이 후손들을 위하여 멕시코의 대학에 한국어반을 설립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이 요청을 어찌 안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석달 후, 필수 서류 (강의계획서, 교재, 강사진)를 다 구비하여 마침내 한국어 강좌가 2017년 가을학기에 창설되도록 대학에서 허가가 나온 것이다. 3개월만에 이루어내 쾌거라고들 하며 축하해 주었다.

작년 원고 내용에는 지난 가을학기의 개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개학은 8월 14일이었는데, 대학당국의 마지막 조건이 “15명만 등록하면 한 반(class)을 열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과연 15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을 할 것인가! 모두가 가슴 조리며 기다리던 참이었다.

독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드디어 2017년 8월 14일, 가을학기 한국어강좌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15명”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어반은 48명이나 등록하여 팡파레를 울리며 힘찬 출범을 하였습니다. 당시

UABC 대학의 외국어센터는 8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한국어는 그 9번째 외국어가 된 것입니다.

첫학기 개강을 앞두고 모든 절차가 기적처럼 잘 풀리고 신바람 나는 시기였다면, 개강 후 1년간은 보람과 역경이 교체하는 “희비의 쌍곡선”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중요한 사건(events)을 중심으로 독자들과 그 후속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2017년 5월 30일 한국어 개강 첫번 교수회의를 하러 UABC 대학 캠퍼스를 처음 찾았을 때, 사무실 문 옆에 붙은 “태극기가 들어간 한국어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반가워서 갑자기 심장이 뛰던 체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태극기 아래 COREANO라는 글자도 감동이었지만 외국에서 보는 태극기는 왜 그리 사람을 흥분시키곤 하는지요!

드디어 한국어의 개강 축하모임이 2017년 8월 14일, 화려한 현수막(banner)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 그리고 한국어 수업은 K-POP 등, 한류에 힘을 받아 학생들을 신바람나게 하였고, 젊은 강사들의 열정도 타올랐습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발음이 많아 특히 모음과 된소리(ㅃ, ㅌ, ㅍ) -- 멕시코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너무나 잘 하고, 잘 하니까 더욱 신나서 한국노래 (아리랑)와 음식(김치, 떡볶기) 등 문화체험도 하면서... 어떤 여자애들은 춤까지 곁들일 정도였습니다.

2. 재정적 위기: 이렇듯 한국어 붐이 무르익어 갈 무렵 누군가가 호사 다마라 하였던가! 뜻밖에 검은 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재정난이었습니다. 최초로 K회장이 찾아와서 한국어 창설을 요청했을 때는 “모든 재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으니, 흥교수님은 학사기획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개강이후 -- 여기에서 구구하게 설명하기 힘든 사정으로 -- 전혀 도움이 없더니 총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부 밖에 모르는 필자와 두 강사 선생님에게는 청천벽력의 충격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 그 대학에서 나오는 월급은 시간당 110 페소 (미화 \$5.70 상당)에 불과하여 K회장은 두 강사에게 적어도 시간당 \$20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한국어 강의는 매월 40시간이나 되는데, 그 대학의 월급은 미화 \$230 정도입니다. 시간당 \$20을 지급하더라도 월\$800 밖에 되지 않고, 이나마도 순전히 ‘자원봉사’차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저희 교수진은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우리 한국어반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재정난을 당장 타개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3. 심시일반 도움의 손길: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몇몇 교육기관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과 본 이화동창들이 “귀한

일"을 한다면서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반은 근근히 지속되었고, 가을학기를 마칠 무렵에는 공식적으로 모금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한 마디로 줄이면, 자주 정부와 미국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단체로 세금 면제가 되는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Grace Korean Foundation (GKF은혜한국어재단)! (Tax ID: #82-2837359). 작지만, 한국동포와 미국교포로 어렵게 이사진도 구성했습니다. God bless GKF! God bless its members!

GKF 창립총회 및 이사회는 2018년 1월31일 12시에 LA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만리장성)에서 재정형편상 21명 (이사진과 관계자 및 신문기자 3인) 정도의 소수인을 초청하여 조출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②

4. 가을문화축제와 구경행사: 한편, 재정위기를 겨우 모면하고 살얼음을 거처가는 동안, 또 한 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어반 학생들은 나름대로 문화활동에 열중해 나갔습니다.

매년 가을학기에는 9개 언어반 단위로 가을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작년에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해서 LA의 여러 교회에서 기증을 받아, 통통한 멕시코 여학생들이 한복을 끼어입고, 수 백명이 모인 축제마당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③, ④

그리고 2018년 봄학기에는 음력 설날 (양력 2월16일)을 맞이하여, 여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남학생들은 한복을 구하기 힘들어 두명만 입고) 모두 선생님들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교실이 좁아서 마당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모두 엎드렸을 때는 마치 임금님 앞에 수십명 궁녀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소리 높여 자랑스럽게 다 함께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를 불렀답니다. 교수는 미리 준비한 세뱃돈으로 각각 미화 \$1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경음식으로 떡과 빈대떡 한 쪽에선 학생들이 군만두와 떡볶이를 요리하고 -- 과일, 음료를 나누며 즐거운 잔치 마당을 이루었습니다. ⑤

요즘, 미국에 있는 교포사회에서도 한국의 구정이 언제인지 모르고 보내기가 일쑤인데, 이런 행사를 멕시코에서 할 수 있다니! 참으로 감회가 남 달랐습니다.

5. 현황 및 전망: 금년 가을학기에는 신입생 반이 하나 더 생겨, 한국어는 3 단계반(3 Levels of class)이 됩니다. 강사 한 분이 더 필요하게 되어 걱정 중입니다. 지난 봄학기에는 UABC 대학교의 Ensenada Campus (분교)에도 필자가 만든 강의계획서에 따라 한국어반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네켄 후손이 100여년 전에 처음 배를 타고 와서 정착하였다는 메리다 시에 있는 Merida University에서도 이번 가을학기에 한국어반을 만들고 싶다고 하여 필자가 일체 강의계획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가을학기에는 멕시코에 3개 대학교에 한국어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즐거운 비명(?)을 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어느 대학이나 한국어반의 창설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강사월급이 문제일 뿐이지요! 목하 중남미의 여러나라에서 한국어 붐의 이유는 무엇보다 K-POP, 한국 드라마, 음식, 태권도 등 한류의 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는 한국어의 세계화 동향(trend)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GKF재단은 겨우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뜻있는 한국인과 해외 동포들이 협조하면 한국어의 세계화는 전망이 대단히 밝습니다!

연락처 Tel. 661-505-3234
Email. yshong333@yahoo.com





이혜리 (56)

David 종재 Lim 영전에 드립니다.

이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들 기억에 남겨진 그림자를 더듬어 봅니다. 학자로서, 의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항상 따뜻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친구가 되어 빠짐없이 우리 동창회에 오셔서 새롭고 중요한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해 주셨으며 또 무거운 카메라로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 우리 앨범을 장식해 주셨음을 아마도 이화 동창 여러분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❷

지난 6월 30일 작고하신 David J. Lim 박사님은 이화인이리만다 알고있는 한영숙(56년 졸업)의 남편으로서 배재 고등학교와 연세대의대 졸업 후 이비인후과 수련의를 거쳐 미국에 오셨고 하버드 의대 이비인후과에서 연수를 마치고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와 세계에서 가장 큰 이과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셨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 난청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는데 동양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 후 1995년 부터 L.A.에 있는 세계 제일의 House Ear Institute 연구 소장으로서 이 연구소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셨다. 이분의 커다란 학문적 업적 때문에 세계적인 학회 미국 대표로 활약했으며 2009년에는 서울에서 세계 중이염 학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2017년 World Congress의 금메달을 비롯해서 ❶ 다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으며 만약 베토벤을 지금 데려온다면 그의 귀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은 그의 새로운 업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한 인물로서 평가된다. 물론 한국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분과 같이 여행하고 배우고 놀며 같은 공간에서 지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우리 이화인들의 행운이기도 하다.

그는 Columbus 한인회장 시절 인종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했으며 한글학교 후원회 이사장으로서 한인 2세의 한글교육에도 크게 공헌하셨다. 특별히 음악을 사랑하여 D.C.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무명의 음악가를 발굴해 케네디 센터에 데뷔시키는 일에 열성을 쏟았으며 한국 유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을 베푸는 등 남들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을 당신 자신의 보람으로 여기며 전공 분야뿐 아니라 음악, 미술등 문화를 통해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 기여하며 살아오셨다.

몇 가지 개인적인 기억 중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도착 시간이 예기치 않게 많이 지연되어 자정이 가까워 LA 공항에 도착했다.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 아래서 영숙이를 올려다 보시던 그 눈빛, 그리움과 반가움, 신뢰와 사랑이 가득찬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방향이 전혀 다른 나를 우리집까지 데려다 주시고야 집으로 가셨다.

학문을 사랑했고 음악과 미술을 즐겼던 분, 친구와 동료, 후배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셨던 그 분은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할 일을 다 한 사람으로서 미련없이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나셨다. 분명 하나님은 좋은 상을 마련하셨으리라. 임종재님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변하지 않는 사랑



이영순(53)

아주 오래 전 나는 동아일보에서 '사랑'이라는 제목의 연재소설을 감명 깊게 읽은 일이 있다. 어머니와 딸과 갓난 외손녀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버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할머니와 딸과 손녀가 엉겨져 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사고를 당한 그 순간 할머니는 자기의 딸을 부둥켜안았고 딸은 자기의 딸인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다. 그런데 엄마 품속에 있던 아기만은 살아있었다. 이것이 그 소설의 사랑의 결론이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기쁨과 보람과 희망이 넘치는 것은 사랑 속에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사랑을 뜻하는 희랍어 단어는 네 가지나 있다고 한다.

첫째,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필요에 의하여 사랑하는 즉 이성간의 사랑이다. 남녀의 사랑은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을 감싸 주고 이해하면서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무원칙의 사랑이기 때문인데 이들의 사랑은 말 그대로 에로스의 사랑이다.

두 번째, '스토르게의 사랑': 이 사랑은 동족애나 바로 앞에서 언급한 연재소설에 나오는 3대의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의 사랑이다. 그러나 요즘은 생활이 어렵다고 자녀들을 내버리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가. 남편을 살해한 아들을 변호하는 어머니의 자세도 어떤 면에서는 스토르게의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간다. 그러나 패역한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스토르게의 사랑도 역시 불완전한 사랑이다.

세 번째, '힐리아의 사랑': 이 사랑은 친구 사이의 사랑 즉 우정을 말한다. 그러나 친구의 우정도 한결같지가 않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예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 사랑도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제한된 사랑이다.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그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결코 강요받지 않는 사랑이다. 사심 없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리켜 자기희생의 사랑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3:16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비우신 절대적 희생의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옮겨야 할 아가페 사랑의 진수를 말하고 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도 사랑도 교만도 아니 하는 사랑이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하다. 아가페의 사랑은 가장 순결하고 절대적인 사랑이다. 결코 요한복음 3:16의 사랑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사랑을 베풀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불미스러운 소문을 가끔 듣게 된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부르짖어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이 진리를 희생시킬 때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래 전에 뉴욕에 이민 온 한 교포의 부끄러운 고백을 읽었다. 부부가 한도그 가게를 열심히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벽 속에 감추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 돈이 100만 불이 되었을 때 이제는 돈놀이이라도 하려고 벽을 열어 보았더니 기름 냄새 때문에 쥐가 다 잡아 버려 가루가 되었다고 하였다.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먼지로 화해 버렸다는 고백이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뿐이겠는가.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면서 모은 재물이 얼마나 잘 보전되었는가. 세금은 시민의 의무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면, 아니 그런 시민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자녀들이 부모와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닮아간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생활을 그대로 모방한다. 아가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은 이 세상의 죄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일이 허다한데 그렇다면 은혜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분을 받아 들이면 그는 기꺼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신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한다.

사람들이 사귀면 힐리아의 사랑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결단코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계획이나 경험이 그 출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속하는 사랑이다. 그러기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분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이혜숙 (63)

칠순의 행복

2월 27일

그렇지, 가위를 가져와야지. 어, 여기에 뭐가 지저분하게 많아 치워야지.

아, 가위를 안 가져왔네! 왔다갔다 하다보면 혹사 당하는 것은 내다리! 그러나 운동이 필요한 내 칠순나이

어, 내 안경 어디있지? 왼손에 잡혀있는 그것을 보고 웃게만드는 이 깜빡. 이것도 칠순의 행복??

3월 7일

매 토요일마다 합창단에 나가는 기쁨! 노래하며 사는 삶은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사는 기분?

선,후배들 구별없이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어머, 예뻐졌네...어머.. 지난주 보다 더~ 젊어졌네요! 그 비결은요?”

2시간 연습 내내 군더기 없이 온 정성과 사랑을 모아 가르치시는 지휘자님의 혹독한(?) 훈련에도 껌소리 안하고 엔도르핀을 생성하는 열심단원들!

연습 끝나고 이메일로 선,후배간의 오고간 글

“합창연습때 눈웃음지으면서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 옆모습 보기가 너무 예뻐습니다”

“저를 예쁜 눈으로 예쁘게 보아주는 분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이네”

옆에서 보고 있던 후배가 “이런, 아름답게 오고 가는글 저에게도 사~알짜 전해 주세요”

5월 3일

이런 기사를 보았다. ‘노력없이 100세를 탐하고 건강을 탐한다는 것은 꿀돼지 심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힘들어도 운동해야 되고;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힘들어도 남편 배려해야 되고; 요것은 참 하기가 힘들다.

힘들어도 미운사람 딱하나 더 쥐야되고; 정신건강을 위하여. 진짜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그러다가도 ‘뭐 그렇게 힘들게 안달하며 100세 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대강대강 살다가 9988....’ ㅎㅎ

5월 10일

골반근육, 우리끼리니 말이지...고시기를, ‘꽉’ 조여주면....

합창단에서 높은 음이나 스타카토 등등을 할 때 지휘자님의 특유한 웃음(입을 활짝열고 하하 웃는)과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손을 짹 조였다가 풀었다가 또 짹... 확실히 고음이 ‘뵙~옹’. 일석 이조라는 말이 이것이구나!

노래도 잘하게 되고 기침, 재채기, 운동 등을 통해 소변이 썰수 있는 요실금도 막아주고!

한걸음 더 나아가 고시기를 ‘꽉 조이고’ 걸으면 내 구부정한 허리가 펴지는 것 같다. 개똥철학이 아니기를 바랄 뿐.

그러나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다음에 저를 보시면 허리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요것도 칠순의 행복 중 하나

7월 7일

헉,헉..이마의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쓰라린 눈꼬리를 걸옷자락으로 닦으며, 쉬엄쉬엄 숨을 돌리며 조심, 조심...

찌는 더위에 지팡이를 친구삼아 행여나 허리가 더 구부러질까 길옆에 있는 막대기를 등허리에 받치고 산허리에 올라와 병에있는 냉수를 들이키며 그늘진 바위에 앉아, 살랑살랑 흔들리는 파란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흘러내린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바람을 마주대하며 “아~ 살맛 난다 그치?”...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에 파란 풀밭에 앉아있는 두 아기의 달콤한 울음소리.

우리 손주들의 울음소리 떠올리며 빙그레 웃으며 지나가는 이 즐거움. 바로 이것이 칠순의 행복이군요.

My Homesick & Live Show



전서경(65)

1973년이였다.

나의 첫 번 business trip이자 첫 유럽여행으로 암스텔담을 갔던 때가. 나는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잡화품을 수입하는 수입상들의 한국 Buying office를 맡아 운영하고 있었고 암스텔담에 본부를 둔 그 importer는 중간무역을 하면서 나에게 물건을 사서 유럽전역에 대부분을 되팔고 있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내가 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독일, 불란서와 벨지움의 백화점들도 가보고, 구매담당자들과 만나서 상담하고 그 다음해 주문도 받아오는등...또 그 사이에 2박3일로 Nurenberg Toy Fair 도 참석해서 물건도 팔고 아침부터 밤까지 쉬새 없이 움직여야 되는 3주간의 여행이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설렘과 흥분, 일의 성취를 위한 긴장감 등으로 탄생각을 할 틈이 없었지만 중반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한데 설상가상으로 으시시하면서 몸살, 감기 기운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고 그저 고추가루 퍽퍽 친 콩나물국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말 그대로 terrible homesick에 걸리고 말았다.

나에게 너무나 소킹했던 것은 그 나라의 남성/여성 개념이랄까? 길에 붙여져있는 광고사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문구들과 그림들, 또한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꺼리낌없는 라이브 포옹과 키스 등등... 그 당시 한국에서 태어나서 줄곧 한국에서만 살아왔던 25/26살의 보통 한국 여자에게는 그저 순간 순간마다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되나? 할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 나와 같이 일하던 네델란드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연신 놀려대었고 나는 그저 빨리빨리 일이 끝나고 집에만 가고 싶었다. 70년대 초반 그때 그나라에서는 자기엄마, 아버지를 first name 으로 부르는등...지금 2016년의 미국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일들이 그저 보통인, 지~인짜 극진보파 나라라고 할까??

그러는가운데 3주가 거의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면 집으로 가는 날이 왔다. 며칠전부터 같이 일하는 수입회사 사장인 Hans 가 나에게 친한 송별회를 해준다고 버리고 있었다. 헉! 친한 송별회? 무슨말인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보다 훨씬 훨씬 친한 라이브쇼 라나? 떠나기 전 날, 일이 끝나고 빨리 내방에 가서 짐도 싸고 자고싶은데... 송별회고 뭐고 다~ 귀찮은데 그 사람들 차에 실려 다니니 어쩔 수가 없다.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한다. 그냥 큰길에서도 눈을 감고 다녔는데... 나이트클럽? 라이브 쇼?

무거운 나이트클럽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가 보여도 겁날 것 같기도 한데...3초, 5초..10초쯤 지났을까? 그때 불이 켜지면서 음악이 연주되고,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어? 이게 뭔가?? '당신이 내결을 떠나간 후에...' 분명히 한국말로 사랑해 당신을을 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한국 사람들 같은데... 내가 꿈을 꾸고 있는걸까? '얼마나아 눈무음을 흘렸는지 모르다오...' 그 후에는 그 가수들과 나와 같이 간 네델란드 직원들과 또 나중에는 그 나이트클럽의 손님들까지 모두... '예, 예, 예... 예예예, 예예예, 예,예,예.....' 왜 그렇게 눈물만 나는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눈물..콧물..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때 이미 한국에 일년에 2-3번씩 출장을 갔었고 한국유행가도 좀 따라 부를 줄 아는 Hans사장이 암스텔담의 어떤 나이트 클럽에 한국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사랑해 당신을'을 특별 신청곡으로 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그곡이 끝나고는 좀 촌스러운 고향 가고싶은 노래 등등 2곡인가를 더 불렀고, 그저 나는 코만 팽팽 풀고... 그런 나를 보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뿐 아니라,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어 죽겠다고.....

끝나고 가수들을 만나보니 남성/ 여성 듀엣인데 부부간이라고 한다. 약기 하는 사람들과 4-5명그룹이었던것 같고 자기들은 유럽의 여러나라와 계약을 하고 이렇게 몇달씩 이곳에서 저곳으로 공연하러 다닌다고 한다. 그 여자가수가, '미스전은 왜 울어요? 이제 내일 서울에 간다면서요? 우리 집 떠난지 2달도 넘었고 아직도 3달도 더 있어야 서울에 가는데...미스전이 울면 우리는 어떻게 해? 첫돌이 지난 아기도 두고 왔는데...'하면서 나에게 허그해주면서 저도 운다. 자기도 아기를 보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운다.

요즘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참 많은 조기유학생들을 본다. 대학생 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집 떠나고 엄마, 아빠 떠나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집 심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서 살면서 유학하는 애들을 보면...도무지 요즘애들은 종자가 달라졌나? 대학까지 졸업하고 스물대여섯살이나 되어서 3주여행에 집에가고 싶어서 울었다고 하면 '별그대' 라고 할까?



박기순 (65)

마지막 남은 고민거리

“하나님이 바빠서 그런 기도는 못 들어주시거든.”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일부를 친구에게 얘기 한 후 받은 핀잔이다.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모양새일까? 친구의 의견처럼, 바쁘니 그 정도는 네가 해결하라고 외면하시는 종류인가? 자잘한 것까지 모두 올려드리며 아 된다. 내가 원하는 바를 미리 결정하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고자질 하는 수준이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유치한 일상을 하느라 아버지께 세세히 보고 드린다. 그러곤 기다린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답을.

내가 하는 생각이, 행동이 과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 어떤지 판단이 안 서는 때가 있다. 이를테면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던 진단을 받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고 의사를 바꿨다. 네 명의 다른 의사 진단이 똑같다. 수개월 방향 끝에 처음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로 다시 갔다. 남달리 유능한 각막 전문의로 카이저 병원 안과 의사들이 강력하게 추천한다.

일 년을 기도했다. 의사에게 말하기 싫었다. 아버지가 직접 안수하시면 간단히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시야가 뿌옇게 가려 안 보이게 됐다. 불편한 쪽을 손으로 가리고 한 쪽 눈으로만 보면 뚜렷하다. 이정도로 나빠진다면 차라리 이식 수술을 하자. 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왜? 인간의 손에 나를 의탁하도록 보고만 계시까. 그러다 실수하면? 재수술하게 되고 결국엔 실명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데. 내가 이해 못 하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하고 싶다. 나처럼 모든 걸 떠맡기고 칭얼대는 자식들이 엄청 많다.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사랑을 주신다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존재가 있다. 우리 인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영특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우리만 편애하신다는 불평으로 자칫 우리를 청구할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이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 매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옴이라고 불평하며 그를 시험하도록 청구했던 사단의 교활함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곤경에 빠트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가끔, 담판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경우가 있다. 나더러 어찌라고요? 나 이리다 죽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참고 살다 병들어 죽는 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에요? 정 그러시면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래요. 왜 나만 참고 살아야 하는데요? 어느 순간엔 슬픈 표정으로 나를 지긋이 보고만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다. 지혜를 구해서 아버지의 참 뜻을 구별하고 싶다.

작정을 하고 찾아 온 대학동창에게 은퇴 후 삶의 밀천을 흘랑 날렸다. 동창이니까 의심 없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서 경영하던 약국을 넘기려던 남편이 그만 사기를 당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시간 끌기, 야비한 방법으로 트집 잡기, 문서화 된 약속도 안 지키고, 남편의 이름으로 28만원이란 액수로 몰

래 외상 약을 자신의 영업장소로 받아서 착복을 시도했다. 결국 아내의 입장에서 내가 끼어 들어 진열된 약품들을 돌려보내고 외상 빚을 청산하도록 했다. 권리금 못 받은 손해에 인벤토리를 땀 처리 혈값으로 처분하며 배신감에 아파하는 남편이 바보같아서 미웠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기 친 남편의 동창을 내가 용서 못한다. 12년이란 세월이 지났건만, 뻔뻔한 그 동창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좋은 마음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손해를 당한 남편도 미운 판에, 누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지경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요즘에서야 곰곰 생각 한다. 아직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내용의 기도다.

내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억지로 못하는. 웬지 마음이 누그러지고 있는 느낌이다. 12년이란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신 올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있다. 돈에 욕심이 크지 않은 우리 부부가 먹잇감으로 보였겠지. 약아빠진 잔머리 굴려, 뜯어 먹어도 별 상처 없이 넘어갈 허술한 것들이라 짐작 되어 그랬겠지. 그렇다. 맞다. 우리 그거 잃었어도 사는데 지장 없었다. 여전히 풍족했다. 오직 상처가 된 건, 친구라면 친구요, 동창이라든 동창이라서 한 가닥 의심도 안 했던, 순수함이 짓이김을 당한 남편의 가슴에 생긴 깊은 상처다.

이쯤해서 그 사건은 잊을 것 같은 예감이다. 내 힘으론 못하겠지만 적어도 잊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싶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저절로 생겨나는 훈훈한 기도임을 고백한다. 이정도의 푸념에도 내 입을 막으려는 남편, 나보다 먼저 잊고 싶었던 모양이다. 마음 다친 후 큰 병 얻을까 두려워 남편을 놓고 쉬지 않고 올린 기도에도 넉넉히 응답 주신 하늘 아버지께 드디어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면 용서가 안되지만 원수였어도 그저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되면 그가 곧 내 형제가 되는데 어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어리석은 어린양 같아서 언제 어떤 치명적인 못된 짓, 즉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도 나도 다 똑같은 부족한 인성임을 인정하면 얼굴 마주하며 따스한 미소 건낼 수 있겠다.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기도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나는 오직 한 가지 이치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올리는 기도가 혹여 하나님을 곤란하시게 만들지는 않는지? 사단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체면을 지켜드릴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자랑스런 자녀로서의 기도 앞으로 쉬지 않고 고민해야 할 나의 기도 내용들에 하늘의 도우심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빠서 모른체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다.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때가 되면 제일 좋은 것으로 내려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에 행복할 수 밖에 없다. 체면 차리려 애쓰지 않는다. 언제나 칭얼칭얼 때 쓰며 약을 써도 받아 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다. 내가.

찬란한 낙엽



이부원 (72)

아름답고 어여쁜 이화 교정을 거닐고
 라일락 향내가 은은하던 노천극장에서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와라’ 를
 찬양 드리던 우리의 모습은
 나의 영혼 소중한 곳에서
 봄 날의 고운 연두빛 앞으로
 향긋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펼치며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에
 푸르고 푸른 잎들이 시원한 바람에 서로 부딪치며
 자연의 신나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싱그러운 진한 녹색의
 초록잎 이었습니다

어느덧 나이 들어 엄숙한 시간의 행진의 길을 힘없이 걷던 중에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形形色색 하늘의 빛으로 물들이실 때에
 알록달록 아리따운 단풍잎이 되어갑니다

마침내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찰나에 내게 다가오는
 하늘 나라가 눈부시게 아름다와서
 눈을 마주치며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내 사랑 주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정경실 (72)

봄 비

소리 없이 봄비가 내리는 날
카페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물방울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기울인다

바람이 불어오면
활짝 핀 벚꽃이 흩어지며
아름다운 꽃비는
수채화를 그린다
검은 아스팔트 위에

죽은 듯 서 있던 가로수는
물을 머금고
생생한 연둣빛 방울들을
가지 끝마다 매어댄다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꿈도
다시 푸르러지리라

영이 겸손하며 노력하는 천재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 (J.S. Bach) 1685-1750



이혜경(78)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바하는 온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자 올겐 연주자였다. 그는 천재적 연주자이면서 교회 음악가였다.

그가 죽은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곡은 늘 연주 되어지고 있고 영원히 연주 되어질 것이다. 모든 음악의 Competition에서 같이 경합이 이루어 질때면, 콩쿨에서 동점일때, 바하곡이 있으면 바하곡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영원할 것이다.

서양 클래식 음악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해도 바하의 “평균률 클라비어” 곡집만 남아 있으면 현재의 음악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할 만큼 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일찍 일어나면 매일 무릎을 꿇고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가 작곡하는 곡마다 시작전에 영감을 달라고 “예수님 도우소서” 썼고 완성된 곡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라고 꼭 썼던 것이다. 바하는 천재 음악가였지만 겸손한 영을 가지신 분이셨다. 그리고 자신을 미약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음악 작곡가, 연주자 되어야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임했다. 그리고 늘 고백하길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는 모습 보이고자 한다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매일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8시간 연습했다고 전해진다. 재자들에게 본이 되는 스승이었다. 밤마다 매일 작곡하여 새곡을 주일마다 연주하는 ,,,, 노력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분이셨다.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작곡을 전공하고, 올겐을 전공했지만 나로써는 바하처럼 사는것은 불가능한 것을 안다. 단지 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그분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영을 갖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 한다.

생명이 있는 동안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서 연습하는 노력을 포기하지않고 사는 작은 음악인이 되길 기도하며, 바하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하며 글을 띄웁니다.



호진희 (64)

길건 짧건 간에 여행은 일탈이다.

LA에 살면서 제일 많이 간 곳은 Cambria다. 여기서 자동차로 4시간쯤 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Moon Stone Beach. 거기서 Hwy1 안쪽으로 조그만 예술가 타운이 있다. 미국인 직장 친구들이 추천해서 가기 시작해 거긴 우리 식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되었다. 별로 준비할 것 없이 잠옷과 세면도구만 챙겨 금방 떠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Red Robin이라는 그리 비싸지 않은 맛집도 소개를 해 주었다. 동양인 부인과 같이 만들어 내는 셰프의 gourmet음식으로 늦은 아침과 점심을 맛있게 먹을수 있는 것이 또 하나 그 곳의 매력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이 모여 살며 창작한 갖가지 작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을 구경 하다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다 사라져버린 바닷가의 작은 색색갈의 조약돌을 구경하면 하루해가 저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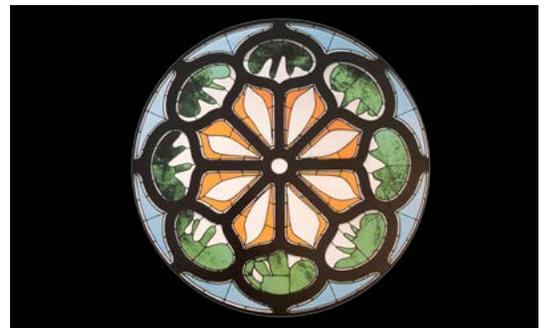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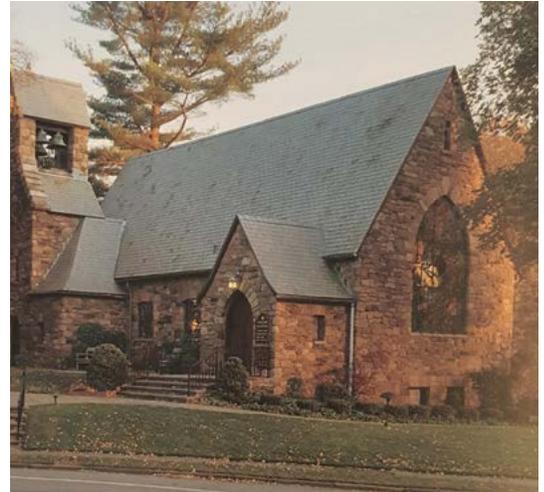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아무래도 Washington DC인듯, 과연 Capital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그 많은 Museum을 무료로 방문 할수 있는게 자꾸 가고 싶게 만드는 제1의 City로 꼽는다.

이번은 NY근교의 The Union Church에 관한 이야기다. 딸애가 NY 맨하탄으로 Job을 옮겨 간 후 나도 거길 틈만 나면 드나들게 되었다. 잘 곳이 생겼으니까. NY을 두 번째 방문 했을 때 일이다. 이번 방문은 졸업반 때 헤어진 동창 문성자를 만나 는게 목적이었다. 학교 다닐 때 성자는 우리들의 언니 같이 성숙해 보이는 그런 친구 였는데 갑자기 고3때 미국으로 떠나 버렸다. 나와는 어릴 때 같은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몇 년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기에 여학교 때도 가깝게 지냈다.

전화로 연락이 되었으나 NY이 아닌 기차로 1시간 남짓 북쪽에 살고 있다하니 만 날 걸 포기했는데 함께 방문할 곳이 있으니 꼭 오라고 한다. 그래서 같이 간 동생 과 딸과 함께 Union Station에서 기차로 Hudson강을 끼고 북쪽으로 Terry Town 까지 가게 되었다. 성자가 마중 나와 차로 찾아간 곳은 Pocantico Hills에 위치한 Rockefeller Estate의 the Union Church였다. John Rockefeller가 1920년대에 세운 그의 가족을 위한 작은 예배당. 어머니가 돌아 가시자 그녀를 기리기 위해 교회 제단의 앞쪽 높은 곳에 Matisse에게 부탁해서 만든 The Rose Window. 그 때 Matisse는 고령이라 작품 만드는게 어렵다고 고사를 했지만 그 자손들의 간절한 부탁에 작고 1주 전에야 작품을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그의 작품 은 Matisse풍의 작품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 몇 년 후에 양옆으로 4개씩 있는 여덟개의 창문과 뒷편의 Arch형의 큰 Stained Glass Window는 너무 뜻 밖에 보게 된 Chagall 작품들. 조용히 앉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오래도록 보고 또 보았다.

Chagall의 작품은 단박에 알아 볼 수 있는 환상적인 화풍으로 성경이야기를 그려 넣은 9개의 Stained Glass Windows. 꼭 찾아가서 두 위대한 화가의 작품도 감상하기 바란다.



▲Chagall의 성경이야기와 Matisse의 Rose Window

E-mail도 Cell Phone도 사용하지 않는 성자와 는 소식이 뜸해졌지만 같이 방문 했던 the Union Church는 내가 원하는 NY근교 제일의 방문지가 되었다.

눈으로 보는 속삭임



김명옥 (64)

마운트 러시모어 여행을 함께 하자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오랫동안 버리기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곳인데, 주저없이 따라 나섰다. 3박 4일 여행길이다.

엘에이 공항을 떠나 콜로라도 덴버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그 후는 전세 버스로 다닌다고 한다. 덴버가 가까운건 록키산맥의 하얀 눈으로 알려준다. 높고 긴 눈 산이다. 눈을 땔 수 없도록 장엄하다. 사막기후인 LA에서 살아 온 세월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설산들에 압도당해 숨이 막힌다. 덴버는 위도 39도, 해발 1600미터에 위치해 있다. 공항 도착후 버스를 타고 와이오밍주의 수도 사이언으로 간다. 가는길은 끝없는 푸른 초원이다. 간간히 블랙 앵거스 검은 소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을뿐 사람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곁에서 누군가 말한다. 싱그러운 녹색만 보며 가노라니 눈이 덩달아 싱그러워 지는 듯 하다고.

밤 지새고 또 달려서 사우스 다코다(South Dakota)로 가야 한다. 사면을 둘러봐도 초록의 평야만 보인다. 두어 시간이 지난 후 짙은 녹색으로 바뀌면서 나무들이 뺨뺨하고 장승처럼 우뚝우뚝 들어선 검은 바위들이 가득하다. “Welcome to South Dakota” 라고 적힌 조그만 입간판을 지난다. 인기척은 별로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나 갑자기 풍경이 달라지다니 놀라웠다. 이곳이 “바위의 주”라고 별명이 붙은 곳이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보니 그런걸까? 곁에 보이는 돌들이 뭔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아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인다. 때로는 정장을 한 군인 아저씨들이 행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좋은 아침”하며 손을 흔들던 이웃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줄지어 함께 춤추는 연회장의 무도회 순간 같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마구 뛰노는 개구쟁이들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희비에 락이 돌에서 느껴진다. 그래서 예전에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누군가는 이곳에 후대에 남길, 높이 깎아서 하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기억하고픈 큰 얼굴들을 각인시키고자 했던가!

다음날, 드디어 마운트 러시모어에 도착했다. 멀리 높은 산에서 뚜렷이 보이는 형상들. 어렸을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줄만 알고 경이로웠는데, 오늘 올려다 보이는 하늘 가까운 산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네 분 대통령들의 모습은 가슴을 쿵 두드리며 내 앞으로 다가오는 듯 하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곳이라는 전망대에 올라서서 등이 휘도록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 본다. 그들의 노동자가 반짝이며 나를 보고 웃는 듯 했다. 따뜻한 햇빛을 받아 살아있는듯 움직일 것 같은 노동자! 얼굴 길이가 60피트라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아닌가. 미소 띤 얼굴들은 낯설지 않고 시공을 넘나들며 “반갑다, 좋은 시간들 되렴” 하며 내가 인사하기도 전에 먼저 속삭여 주는 듯 하다. 큰 꿈이 아니면 어떤가. 가슴에 넘치는 사랑이 서로 상통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연들은 소통 되는 것 아닌가. 그 사

이에 반짝이는 신호등에도 빨간불은 없다. 초록 평야를 지나며 건져온 초록 물감만으로 꺼지지 않고 켜있다. 당신과 나 사이의 초록 신호등이 계속 켜 있는 한, 순간은 영원이다. 이 순간, 내 안의 평안이 곧 세상의 평안이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데오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네 분의 대통령의 얼굴들. 아름다운 무늬의 화강암으로 암각된 얼굴들. 조각가 같존 보그럼(Gutzon Borglum)이 1925년에 연방과 주정부에서 블랙힐스(Black Hills)에 기념될 조각을 하기로 허락을 받으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한다. 사우스 다코다로 가서 마운트 러시모어를 답사하며 돌들의 크기와 아침 점심 때의 빛에 따른 변화와 화강암의 질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대통령들의 흉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곧이어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연방 정부의 도움도 받아 드디어 1927년,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돌을 깎기 시작하면서,

1930년 7월4일	조지 워싱턴 암각완성
1936년 8월30일	토마스 제퍼슨
1937년 9월17일	에이브라함 링컨
1939년 7월2일	데오도어 루즈벨트
1941년 3월6일	같존 보그럼 사망
1941년 10월6일	아들 링컨 보그럼이 완성

가능하다면 흉상까지 완성하는 것이 시작할 때의 계획이었다고 한다. 꿈이 있으면 길이 있다 했으니 언젠고 이루어지겠지 하고 믿어본다. 사람들은 쳐다보는 감동으로 가슴에 제 나름의 꿈을 품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네 분 일 뿐이지만, 한분의 대통령을 더 암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구를 모셔올까 많은 공론들이 있지만 아마도 레이건 대통령을 모시게 되리라 한다.

수천, 수억 년의 세월전에 호수였던 곳이 지각변동으로 밀고 올라와 바다 속 경치를 땅위에 보여주는 곳이 블랙힐스를 비롯한 많은 바위조각품들이 있는 국립공원이라는 설명이었다. 높은 하늘은 수평선과 맞닿으면 더 높아 보이듯, 가장 큰 것은 제일 작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하늘에 오를수 있을까 하며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시도를 했던 사람도 있었다. 석굴암, 마애상 같은 큰 얼굴의 부처상만 보고 자란 고국을 떠나와 미국에서 큰바위 얼굴들을 보면서 사람 중심을 생각한다.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바위만 있는 곳. 그곳에 말 못하는 바위를 깎아서, 말없이 수많은 말들을 전해주는 큰 바위 얼굴을 만든 그 큰 뜻에 감복한다.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경외감에, 감히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 보여주겠다는 마운트 러시모어로의 여행은 또 다른 인간간의 감사를 표하는 진솔함이 함께였다.



김경덕 (72)

감사의 BACKYARD PICNIC WITH LIVE JAZZ MUSIC



올해 여름은 무더위가 유난히 지구를 달구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회 이사님들의 모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열정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사님들께서 회장단이 동창회 살림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와 많은 도움을 끊임없이 주시고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동창회 회장단은 작년 8월에 작은 감사음악회를 열었듯이, 올 해에도 지난 8월 4일에 모든 이사님들을 이해란(72) 동창회장 집에 초대하여 감사 재즈 디너쇼(?) 를 가졌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감사했다.

오후 4시 15분에 베희시장 개장과 함께 시작된 리셉션은 멋있게 차려진 각종 APPETIZER (과일, 야채, 치즈와 견과류)와 음료수 (동창회장이 특별히 준비한 MARGARITA도 포함)가 제공됐다.

베희시장은 동창회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 (돌나물, 볶은 호박씨, 패스트 등)과 각종 생활용품, 의류와 악세사리 등 다양한 물건들이 인기리에 팔렸다. 행사 때마다 열리는 베희시장 (이혜란 회장이 지구 살리기 운동의 한 방법으로 시작)의 판매 수익금은 총 동창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곧 이어 오후 5시부터 LIVE JAZZ MUSIC과 함께 그 유명한 'KOGI TACO TRUCK'의 ALL YOU CAN EAT TACO DINNER가 시작되었다. 미국식 TACO라서 그런지 우리 한국사람 입맛엔 좀 짠듯 했지만 감미로운 재즈음악과 정다운 대화가 잘 어울려 훌륭하고 맛있는 디너가 되었다. 나는 김치TACO와 함께 멕시컨 음식에 잘 어울리는 MARGARITA를 마셨는데 그 조화가 환상적이었다. PIANO, SAXOPHONE & BASS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재즈 음악과 여러 이사님들의 멋진 댄스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그야말로 무더운 한 여름 저녁의 멋진 재즈 페스티벌이 되었다.

흥겨운 재즈향연 디너가 7시로 종료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해란(72) 동창회장의 아들이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 (NO BRAND)이 디저트로 서브되었다. 아드님이 여러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기호에 따라 직접 서브했는데, 너무 맛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루 저녁에 쇼핑, 재즈향연, 풀코스 디너를 모두 한 곳에서 즐기는 동안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어, 이제 더욱 더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아쉬운 작별을 해야했다.

이 모임을 위해 큰 도네이션을 해주신 세 후원이사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먼 길을 운전하고 오셔서 동창회 임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좋은 시간을 같이 해주신 이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멋있는 감사의 향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이해란 동창회장 가족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행사 때마다 회장님을 도와 늘 묵묵히 뒤에서 봉사하는 1972 졸업 동기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포착해주신 백경희(72) 부회장 부군과 이애경(72) 부군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윤경(69)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졸졸졸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가끔은 조용한 흐름을 깨고 큰돌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물방울을 날릴 때도 있지만 곧 졸졸졸 흐르는 사랑의 흐름 속에 묻히어 버리곤 더 잔잔히 졸졸졸 흐른다.

우리는 행복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매주 토요일마다 30여명 정도가 모여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 한다.
아침 9시경이면 합창단원들이 한 둘씩 오시어 테이블을 정리해 주시며 백혜란(70) 동창이 준비해 오는 모닝 커피와 자원봉사자의 아침 간식이 합창단원들을 반갑게 맞이하니 어찌 아니 아침인사를 기쁘게 나누지 않을 수 있을까. 한주간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냥, 무엇이 그리도 다사다난했는지 이야기로, 웃음으로 끝이 없으니 우리 선후배님들은 그저 사랑이다.

올 3월말에 우리 합창단의 최고 연장자이신 이쁜이 임순희(55) 선배님의 82세 생신 잔치가 있었다. 모두들 용궁에 모여서 푸짐하게 대접해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떠들며 춤도 추고 해피해피!
그리고 4월에 송명(58) 선배님의 팔순 잔치도 있었다. 용수산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모두들 다시한번 더 해피해피! 늘 단원들을 배려하시고 임원들을 격려하시며 챙기시는 예쁜 선배님.
또 9월 8일에는 언제나 묵묵히 우리 합창단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후원자이신 최운봉(58) 선배님이 팔순을 맞이하셔서 특별 점심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고 우리 합창단원 모두는 생신상을 멋지게 차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축하해 드렸다.
이 언니들 모두가 우리 합창단을 떠 받들고 있는 저력의 힘 힘 힘이다.

요즘 우리는 재미있고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매주마다 벼룩 시장을 열어 서로서로가 불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하고, 또 필요한 물건은 사고. 그러는 그 과정속에서 서로간의 정은 더 돈독해지고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지 모른다. 오늘은 무슨 물건이 나올까 궁금해하며 기대감에 벼룩시장으로 둥그런 눈들이 집중된다. 어떤 때는 무슨 물건이 나왔는지 볼 틈도 없이 다 팔리고 만다.
이 벼룩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합창단원들의 보스턴 후원 기금으로 적립되어 보스턴 여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술술술 아주 재미있고 많은 기금이 모였었다. 벼룩시장 책임을 맡으신 호진희(64)선배님은 장사가 너~~무 재미있으시다고.

7월 14일 토요일에는 미션 합창제가 있었다. 8개의 미션학교(이화,

정신, 금란, 송의, 배재, 대광, 송실, 경신)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주치를 맡아 행사를 이끌어간다. 올해는 금란여고의 금란 여중고 미션 콰이어가 주치가 되어 충현 선교 교회에서 합창제를 성대히 마치고 작은 기금이지만 소망 소사어티의 우물 선교에 기증했다.

10월 5일 부터 8일까지 보스턴에서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총회가 있었다. 북미주 동창회 총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리며 각 지부의 합창단이 참석하는 음악회를 연다. 이번 보스턴 음악회는 New England Collage의 Jordan Hall에서 열렸으며 우리 LA, 서울, 뉴욕 동창회 합창단이 참석했고 우리가 제일 잘했다는 칭찬을 들어 힘들었던 연습의 시간이 신나고 즐거운 시간으로 화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합창단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연습한 결과라 생각된다.

우리 합창단은 올해 창단된지 27번째 뚝이 되었다.
1991년 9월 7일 23명이 베델장로교회에 모여 남가주 이화여고 동문 합창단을 창단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92년 3월 임순희, 박희경, 김정은, 주영희, 정현옥, 민방임 선배님들이 모여 합창단 중자돈을 마련해 주셨으며 2011년 5월 4일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27년 세월동안 우리 이화합창단은 10월 28일에 있을 제8회 시 각장애인 개안수술 돕기 사랑의 자선 음악회와 연말 파티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음악회를 위해 116번의 합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뻐하는 석재희(79) 지휘자가 우리 합창단을 열심히 훈련 시키고 있으니 머지않아 이 로스엔 젤레스의 최고 의 합창단이 될 것이다. 지난 7월의 미션 합창제에서도 우리 합창단이 제일 잘 했다고, 또 소리도 많이 좋아졌다고 많은 칭찬을 들었다. 우리 지휘자는 젊고 예쁘고 재치가 코메디언 뽀치니 우리 합창단은 연습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랑이라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고 칭찬하니 우리의 마음이 용기와 자신감으로 그득해 진다.

또한 장영희(66) 단장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합창단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애교와 사랑이 넘치고 넘치니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서로 돕고 아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합창단은 우리가 노래를 배우고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맑고 밝아지게 단련되니 하나님의 사랑속에서 희망이 넘치며 예쁘게 예쁘게 졸졸졸 흐르면서 언제까지나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로 있을 것이다.



문화 탐방 모임

첫 문화행사는 1월 25일 LACMA에서 한국관을 비롯하여 일본관을 관람하였습니다.

한국관에서 도자기들, '물의 화가', 안영일 선생님의 작품들을 감상했고 일본 Cloisonne에 대한 Docent의 설명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LACMA의 Ray's & Stark Bar 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뜻다른 우리들의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75년 문애리 동창께서 후대해 주셔서 모두 감~동했습니다.

두번째 문화 탐방은 3월 9일, 금요일 11시에 53년 졸업생이신 윤옥주 선배님의 니트 스튜디오에서 Motivational/ Creative Workshop이 있었습니다.

Jo Ann 으로 알려진 윤옥주 선배님께서서는 오랫동안 Knit wear 디자인과 제작, 패션쇼를 통해 성공적으로 활동해 오셨고 최근에도 한국에서 니트 패션쇼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저희 이화 동창들을 니트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보여주는 워크숍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세번째 문화행사로 8월 25일, 토요일 7시 30분에 Zipper Hall 에서 Dream Orchestra가 주최하는 'Opera Gala: Opera Forever!'에 참석하였습니다. 20여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여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건우, 소프라노 줄리 아담스등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주 접하는 오페라의 서곡 등을 드림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로 들으며 8월의 한 여름밤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문화행사로 9월 13일 목요일에 게티 센터를 방문하여 정원의 나무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상 전시회(1911~2011), 명화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 투어 때는 들어갈 수 없는 보안구역도 Docent, 이 윤근 동창님의 특혜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등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만든 장치, 정원의 나무들과 식물들의 배치, 물주기 시스템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정말 게티센터가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언젠가 보아도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였고, 건축물과 예술품 등으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정시에 참석하신 11명의 이화 동창님들과 점심을 대접해 주신 이혜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게티에서 21년째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이 윤근(66) 선배님, 기꺼이 시간내어 주시고 열정적으로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문화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식사등 후대해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은경 (77)



골프 모임

골프모임은 일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열립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예쁜 골프장에서 함께 운동하며 많이 웃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모임입니다. 운동 후에는 골프장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시상식을 합니다.

올해 3월 12일의 토너먼트에서는 Low Gross 최순화(72)동창, 장타상 김영례(67)동창, 근접상 최동은(72)동창, 다파상 최숙자(62)동창, 다보기상 이윤경(69)동창, 익사상 김경덕(72)동창이 받았습니다. 토너먼트를 위하여 도네이션을 해주신 총동창회에 감사드리고, 무거운 물을 사서 도네이션해주신 최순화(72)동창과 맛있는 텐저린과 사탕을 도네이션해주신 김경덕(72)동창에게 감사드립니다.

9월24일 월요일Downey에 있는 Rio Hondo Golf Course에서 가을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Low Gross 장한렬(58)동창, 다버디상 김경희(67)동창, 다파상 이선옥(73)동창, 다보기상 김숙(67)동창, 행운상 홍순조(63)동창이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찬조해 주신 총 동창회와 토너먼트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골프회를 이끌어갈 새회장으로 이선옥(73)동창이 수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골프모임이 계속적으로 잘 되기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동은(72)



걷기 반

처음에 4-5명으로 시작한 걷기반이 어느덧 만 3년반이 지났습니다. 집안일로 또 여행으로 한두분씩 못 오셔도 7-8명이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 그리피스파크 파킹랏에서 모여 천문대까지 올라가 오은경(74학번)후배의 구령에 맞춰 체조와 스트레칭을 하고 내려옵니다. 시간은 한시간 반 정도 소요되며 내려와서는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피크닉장소에서 각자 준비해온 아침식사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줄 모른답니다. 모이는 장소는 웨스턴길을 따라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오다가 왼쪽(Fern Dell)으로 들어와 조금 올라와서 왼쪽에 있는 Trail Coffee Shop을 지나면 곧 왼쪽에 큰 파킹랏이 보입니다. 동창 및 선후배님 모두 환영합니다.

연락처 백혜란(70) T.213-247-4524 / 홍순애(70) T.562-253-2623

백혜란 (70)



민화 교실

민화, 한국화, 궁중회화 등 민화부터 시작하여 한국채색화, 궁중화, 다양하고 아름다운 고유의 색 부채그림과 민화매화도 등 멋과 한국 고유미를 자랑하는 한국의 색을 채색하여 나만의 장식미술작품을 만들어보세요.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는 분들의 미술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더불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가을과 내년에 민화, 한국화, 궁중회화를 전시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심현주 (69)



메이크업 교실

깨끗한 피부, 우아한 메이크업.

T.P.O. 메이크업, 나이에 맞는 피부와 젊어 보이는 메이크업을 배워 새롭게 변신해 보시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경험하세요.

예약 상담 213-458-0790

심현주 (69)





섬의 깊이를 느끼는 곳! 격의 차이를 만드는 곳!

동해바다를 품은 프라이빗 오션 리조트 *라카이 샌드파인*



▶ 펜트하우스 객실



▶ 컨벤션(웨딩홀)



▶ 샌드파인 골프클럽

라카이 샌드파인 _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536 | T. 1644 - 3001 | www.lakaisandpine.co.kr



한영숙 (56)

북미주 동창회 총회를 다녀와서

지난 금요일에는 제 8차 북미주 이화여고 동창회를 참석하러 보스턴으로 아침 일찍 떠나면서 2004년 여기 LA에서 발기 총회를 하던 생각을 했습니다. 정창용 교장선생님과 김숙희 동창회장님의 뜻을 따라 발기 총회를 하기로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뉴욕, 워싱턴 D.C., Chicago, 서울, Ohio 외에 여러 곳에서 참가하겠다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며, 서울에서 교장선생님과 김숙희 동창회장을 비롯해서 8명이나 오셨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Las Vegas 를 거쳐 Bryce, Zion Canyon, Grand Canyon 까지 3박 4일 여행을 하면서 120여년 전에 이화를 세운 Scranton 여사 장학금을 모아 여성국에 빛을 갚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Washington, D.C., New York, Cleveland, Philadelphia, Hawaii, Toronto, 그리고 지금은 Boston. 너무 감개 무량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에는 보스턴 실행 임원들과 당연직 부회장인 지역 동창회장들이 모였습니다. LA, New York, Washington, Philadelphia, Ohio, Chicago. 임원회에서는 그동안 10년간 수고한 이재현(72) 웹마스터의 사직을 받아들이고, 김윤경(98) 동창을 웹마스터/웹코오디네이터로 임명하고 동창회에 참석하는 경비 (교통비, 등록비, 호텔비) 를 host 동창회에서 부담 하기로 결정하고, 올해는 제작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에는 JFK Library 에서 Kennedy 대통령의 여러 연설을 들으면서 감탄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후 합창단은 연습을 하고, 합창 안하는 동창들은 Maggiano Italian 식당에서 저녁먹으러 갈 때까지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먹은 후 모두 버스를 타고 New England Conservatory의 Jordan Hall 로 음악회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Jordan Hall은 Disney Concert Hall의 반이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전통있는 완벽한 음악당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이화 합창단은 훌륭한 반주자와 완벽한 지휘자의 끊임없는 지도로 완성된 훌륭한 연주를 했습니다. 짹 짹



하는 옷을 이쁘게 입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Piano 독주, cello 독주 그리고 피아노 4중주 모두 최고였고, 김유경(72) 부회장이 정말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 말씀 뒤에 맛있는 lobster roll 점심을 먹고 Boston City Tour, Duck Tour를 하면서 Boston 시를 수륙양용 배(duck)를 타고 돌아 봤습니다. 저녁에는 만찬.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뉴욕과 워싱턴 동창들의 장기 자랑을 보고 후배들이 춤을 추기 시작해서 우리 선배들은 자러 올라 갔습니다.

다음날 9시에 버스를 타고 선택 여행을 떠났는데 가는길이 어찌나 이쁘는지, 이쁘게 물든 단풍사이로 뚫린 길을 한없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오후 5시경에 형용하기 어려운 대단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에서 자고 아침 후에 산악 등반 철도 (Mt. Washington Cog Railway) 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끼어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 왔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스톤 동창회는 몇 명 안되는 동창회지만 이경해(66) 회장이 하 김유경 부회장, 김혜경 모금 위원장 등 모든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해 훌륭한 동창회를 해서, 초대 회장으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Chicago 임원들도 참석해서 2년 후에 주도 할 동창회를 위해 많은 idea 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Chicago 는 아름다운 도시라 기대가 큼니다.





이장란 (58)

이화 졸업 60주년 재상봉 잔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무사히 졸업 60주년 재상봉 잔치에 다녀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팔순의 새로운 삶을 기쁘고 의미있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18년 5월 어느날 반백의 머리로,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소녀의 꿈 속에서 살아왔던 그 동산을 향하여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월28일

이화 재단과 총 동창회에서 해외 동창들에게 베풀어준 DMZ방문을 하면서 길 하나를 놓고 <남과북>이라는 이념이 다른 현실속에서 분리 되어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가슴 답답했습니다.



5월29일

졸업 60주년 재상봉 잔치의 날 행사가 프레지던트 호텔-슈베르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졸업 60주년이 가져온 세월의 변화 때문에 이름도 기억이 안나고 모습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가랑머리 길게 늘어뜨린 이화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며 얼굴의 주름도, 꾸부정한 모습도 어디로가고 우리 모두 젊은날로 되돌아갔고 흥분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와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을 합창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했고, 여행도 함께 했던 친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2부로 이어지며 cake cutting, line dance, 동영상, 식사를 끝내고 빙고게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젊은날의 추억의 시간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던 뜻깊은 날 이



었습니다.

5월30일

이화여고 132주년 창립 기념식이 있었고 졸업 30주년, 40주년, 50주년, 60주년 졸업생과 손녀딸같은 재학생이 내외 귀빈과 함께하는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기쁜일은 우리 동기 이해성회장이 '자랑스런이화인'상을 수상했고 LA 58동기 최운봉 동창이 '동창회 특별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화의 교육과 번영을 위하여 이해성회장이 1억원(10만불), 최운봉 동창이 5만불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5월31일~ 6월2일

해외에서 온 친구 15명과 서울 친구들 39명, 총 54명이 어울려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맑은 날씨는 제주도 관광을 더욱 아름답게 도와주면서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즐겁고 멋있는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름다운 KAL 호텔 Lounge 에서 우리들끼리 송명동창(L.A 거주) 이 준비한 동영상도 보고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 훌륭한 talent가 있었습니다.

6월4일

이혜성회장 자택에서 해외에서 온 친구들 점심 party 가 있었습니다. 교가를 합창하고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쉬움 속으로 스며들며 건강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질 때는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습니다.

우리는 OPAL입니다(Originally, Passionate, Attractive Lady).
우리는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6월 5일

돌아올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각자 개인이 계획한대로 여행, 사업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늘 교정에서 부르던 교가 ‘한줄기 새빛이 동방에 비치니 무궁화 동산에 새봄이 왔도다’를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지성과 감성을 길러준 이화모교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참 즐겁고 뜻깊은 여행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수경 (61)

아! 리들리(Reedley)여!, 광활한옐로스톤(Yellowstone)이여!

타협을 모르는 시간 속에서 금년에 우리 61기들은 여고졸업 어언 57.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참으로 엇그제 같은데 반 세기를 훌쩍 넘긴 것이다.

‘아름다운 날이여 보석어린 꿈의 날개 화평과 지순이 해무리처럼 어려 불멸이여 이화여 오늘 이 문 나서도 저 하늘 무지개 핀 곳에서 다시 만나리 저하늘 무지개 핀 곳에서 다시 만나리’

졸업식에서 불렀던 졸업가의 가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한데, 요즘 우리 후배들은 졸업생 전원이 할렐루야 합창으로 졸업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기특하기도 하고 감동스럽다. 과연 이화답다는 감각이 가슴에 일어난다. 우리 때보다는 훨씬 성숙했다는 깨달음마저 준다.

각설하고, 남가주 61기들은 두달에 한번씩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평균 15명이 함께 모인다. 그뿐 아니라 전 미주 61기들은 힘을 모아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넘도록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소식을 나누며 2021년이 되면 졸업 6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소식지도 100호를 발간하게 된다. 당연히 한국 모교에서 리유니언을 할텐데 그때가 되면 모두 한국 가자고 무언의 약속을 하곤 한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언의 불안감을 느낀다. 과연 모두 함께 갈 수 있을는지...하며. 우리 나이가 그 때쯤이면 거의 80을 바라보게 되고 얼마나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게 될지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이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게 우리 삶이 아니던가. 이런 이유에서 우리 61기들은 60주년 사이 57.5주년 리유니언을 미주에서 한 번 가져보자는 의견을 모아 이번 여행을 결행하게 되었다. 다행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리유니언 단체여행을 주선하는 고마운 동문이 있어서 우린 즐거운 여행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6명이 참석하였고 동부와 남가주에서 거기에 5명의 남학생(ㅋㅋ남편들)들까지 총 35명이 최근 출고된 대형 관광버스로 출발하였다. 행선지는 서부의 요세미티와 중서부 옐로스톤까지 명소 방문의 스케줄이었다.

여행지의 소감을 일일이 여기에 다 옮길 수는 없고 가장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던 두어곳을 소개해 본다. 먼저 리들리(Reedley)라는 소도시의 이른바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흔적과 발자취

가 남아있는 곳의 감동을 소개한다. 리들리는 대부분의 서부관광을 위해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번씩 들르는 곳이다. 우리들 중에도 전에 이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새삼 느낀 것은 이 역사적인 곳에 우리 이화의 얼이 깊숙히 스며있음을 알게되어 감동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무심히 스쳐 지나갔을 가이드들의 개념없는 해설을 개념없이 듣고 흘려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번엔 달랐다. 일반 여행객들도 섞인 관광이 아니고 이화 동기들만의 여행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호관광에서 붙여준 베테랑 가이드는 잠자고 있던 이화의 얼을 깨워 버렸다. 여기에 우리들의 연륜도 무시할 수 없는 인생달관의 경지에 이른 탓이었을까 묵묵히 가이드의 해설을 듣고 난 뒤의 우리들의 여담은 한결같이 감동의 물결이었음을 나눌 수가 있었다. 이곳 한곳만 방문하고 가도 우리들 리유니언 여행의 목적달성은 충분했다고 의미를 부여해 본다.

초기 하와이 노동이민 선조들의 피와 땀의 헌신!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사실은 없었다. 말이 이민이지 거의 노예와 같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몇십전의 임금을 받아 겨우 살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조국 광복을 위해 임금을 아껴 아낌없이 독립운동에 헌금했다. 참으로 눈물겨운 헌신이고 희생이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러나 그들의 흔적은 단지 몇 개의 평토장한 묘지에만 이름이 남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식수준도 물론 낮았고 집안도 가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 사랑은 투철했다. 일찍이 선각한 지식인들 중에서도 낯선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들의 환경과 지식을 뛰어넘어 이룩한 초인적인 독립운동의 헌신은 필설로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 한국 대통령인 이승만박사와 도산 안창호선생 그리고 이화의 얼을 가진 믿음의 선구자적 선배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백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이 작은 외진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 잊혀진 시간같은 세월 앞에서 하늘의 별과 땃별 쪼이는 강마른 벌판에서 오늘도 외치고 있었다. 민족의 역사를, 이화의 얼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한가지 아쉬운것은 이들의 발자취를 그나마 보존하고 있는 이 리들리의 작은 한쪽 귀퉁이에는 그들의 척박했던 삶을 말해주는듯



주변이 삭막하게 방치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인 이민사도 이제 백 여년이 넘었는데, 자본축적도 어느정도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독립 유적지정도는 우리들 손으로 윤택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가꿀수 있으려면 웅색한 작은 한모퉁이에서 바람이라도 한번 스치면 휴지조각들이 뒹군다. 모국의 독립문을 본뜬 작은 독립문의 모형도 세워져있고 선조들의 비석과 역사적 기록을 새긴 비석들도 있지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들를 때 마다 얼마나 이곳 역사에 대한 인상이 뇌리에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앞다투어 사진 찍기에만 바쁘다. 아마도 이곳을 다녀갔다는 또 다른 의미의 증거를 위해서.

역사도 가꾸어야 빛이 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조들은 그걸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후손들이 감당할 몫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를 인도한 가이드는 리들리에서 이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지키는 담당자를 찾아 우리들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와서 우리들에게 이곳을 방문해주어서 고맙다고 오히려 진심어린 인사를 했고 이곳을 많이 알려달라는 당부도 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인사인데 말이다. 우리는 이화벚치를 수놓은 티셔츠를 단체로 입고 있었는데 예지의 능력이 있었다면 여벌의 티셔츠에 우리들 모두의 감사인사를 담아 사인과 함께 적어 전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지금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혹 우리들 뒤의 후배 혹은 선배들이라도 이곳을 단체로 방문할 기회가 된다면 이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싶다.

엘로스톤은 두말하면 잔소리의 광활한 대자연의 파노라마가 펼쳐진 곳이다. 무수말로 이 대자연의 장관을 표현한단 말인가. 다만 빛나는 태양과 더할 나위없이 청량한 맑은 공기가 입을 다물라고 무언으로 명할 뿐이다. 그래서 입을 다문다.

바다같은 무한한 엘로스톤 인공호수와 시간이 되면 본연의 성품을 표출하는 치솟아오르는 열기둥 자연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는 야생동물의 조신함, 그들은 생활환경이 넉넉해서인지 다통도 사나움도 없는듯 보였다. 어느 철없는 아줌마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허락도 없이 초상권을 탐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



람들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한다고 가이드가 주의를 준다. 엘로스톤은 실제로 가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아야 그 맛을 아는 곳이다. 말로는 결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우린 3박4일을 함께 뒹굴며 그 맛있고 매끄러운 물과 공기를 마음껏 담아오고 싶은 간절함을 가슴에 한아름 안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을테니 꼭 다시 돌아오라고.

오, 숭고한 리들리여! 겸손하고 위대한 땅 엘로스톤이여! 희생과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대들을 우리 61기들은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고백하노라.





67기 크루즈 여행기

김명숙(67)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7기 갈래머리 배꽃소녀들이 70평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거친 세 파속을 잘 통과하여 칠순기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울지를 통해서 여행지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담보다는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특히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신년들어 첫번째 동기모임(이미지모임이라고 칭함)에서 "올해는 우리 67기가 70살이 되는 해 이니까 칠순기념 여행으로 우아하게 크루즈여행을 가자~"라는 의견이 나온지 두달 후인 3월 22일에 우리는 Princess Cruise 로 Mexico Ensenada 4박 5일의 추억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속전속결~!! 오래전부터 계획했어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출항일정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행일정이 급히 정해졌고 여행사에서는 제일 먼저 몇명의 그룹인지를 물어오는데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12명이요~

라는 답이 나오게되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하나님~완전숫자인 12명을 채워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인1실로 제일 먼저 현숙이랑 숙이가 예약을 완료했고 연이어 나와 한국의 정숙이(작년 내내 기력이 완전 소진되서 외부와 단절하고 지내던 정숙이가 이번 여행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셨음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례와 경애, 승교랑 영신이, 혜성이랑 중우 이렇게 10명이 채워지면서 더이상의 지원자가 없어서 이대로 마감을 해야하나... 하는차에 한국에서 남희가 꼭같이 가고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히 방을 알아보니 sold-out 이라고 해서 예고....하는데 곧이어 누가 취소해서 방이 하나 있다는 전화가 왔고 서둘러 룸메이트도 없이 마지막방 하나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사망팔방으로 룸메이트를 찾던중에 불가능하다던 정란이로부터 뜻밖에 일이 잘 해결되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일행을 12명으로 꼭~채워주셨습니다!!

우남희(67)

드디어 3월22일 크루즈 시작이다. LA에서 출발하여 Santa Barbara를 거쳐 멕시코의 Ensenada로 들어갔다다 다시 LA로 돌아오는 4박5일 예정인데 총 여행거리가 816마일(1313KM)이라고 한다. 우리가 타는 배는 이름도 아름다운 Ruby Princess다. 이제 닷새동안 이 배를 타고 공주님이 되어보자. LA에 사는 친구 10명과 서울서 온 2명 모두 12명이 모였다. 졸업후 50년 만에 만남 친구 몇 명은 얼굴이 서먹했지만 몇 시간 지나니 다시 어렸을때 얼굴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그대로 여고생 수준이 되어 버렸다. 배를 탔는데 배 안이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다. 복도가 조금 좁긴 했지만 지정된 방으로 가니 그저 보통의 호텔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방은 둘이 쓰기에 넉넉했고 닷새를 같은 방을 쓴다니 안심하고 짐을 풀어 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팀은 저녁식사가 8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 Princess Theater에서 한다는 'Once Upon a Dream'이라는 뮤지컬 쇼를 관람하였다. 기대 이상의 배우들의 연기가 나의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19층이나 되는 곳 곳에서는 피아노 연주, 강연, 재즈, 댄스 클래스, 영화, 쇼 등등 수십가지의 이벤트와 액티비티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식당의 지정된 좌석으로 가서 두 테이블로 나누어 저녁 식사를 하였다. 알뜰한 주부들이 집에서 챙겨온 포도주가 우리의 흥을 더욱 북돋운다.

박영신(67)

배의 흔들림이 다소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 베란다 창문의 커튼을 살짝 옆으로 당겨보니 해안선을 따라서 아담하게 엮여있는 땅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해가 점점 밝아지니 신타바바라시가 더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크루즈 배는 어느정도 떨어져 정박했고 "Princess"라는 이름의 작은보트 4,5척이 바삐 오가며 승객들을 물으로 나르고 있었다. 날씨도 쾌청하고 파도도 순해보여 신타바바라를 구경하고픈 생각이 들어, 시간에 맞춰 열린 보트타는 줄에 들어섰다. 보트는 크게 흔들리지않고 약 10분 후에 우리를 신타바바라 해안에 내려주었다.

몇명의 친구들은 한국에서 찾아와 준 안정숙, 우남희와 함께 신타바바라 시내버스 관광에 나섰고, 다른 몇친구들과 나는 크루즈 승객을 위해 설치한 간이천막소에서 나눠주는 신타바바라 시내지도 를 받아들었다. 빠르고 쉬운 시내관광 요령을 물으니 다운타운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타라는 조언에 따라 송현숙, 김숙, 김명숙과 나

는 25전씩 내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를 탄 후 지도를 펴고 내려야 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이 버스는 다운타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State Street를 오가며 약 12 블록에 걸쳐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신타바바라의 역사적인 명소에 데려다 주는 것이다.

거의 마지막 블록 즈음에서 내려 Santa Barbara Court House를 찾아갔다. 시내를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니 건물의 모양에서 신타바바바라가 안고있는 역사의 시간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1929년에 지어졌다는 Court House도 그 시대의 양식을 갖추고 80피트의 높이 솟은 Clock Tower를 곁에 낀 특색있는 건물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한국 절에 많이 있는 단청같이 채색단장되어있는 나무천정이 눈에 띄었다. 옆으로 놓인 층계에는 1900년도 초에 유행했던 무늬가 있는 타일을 붙여 만들어서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색깔이 있는 아름다운 층계였다. 80피트의 높은탑 꼭대기도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어있다 해서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보니 “와아” 함성이 절로 터져나왔다. 신타바바바라를 360도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하늘이 파랗게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깨끗해 멀리까지 내려다 볼 수 있어 마음과 눈이 확 트인다. 빨간 타일 기와와 하얀색 벽의 건물들은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지만 스페인통치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나타난 산물인 셈이다.

이어서 가까이에 있는 Santa Barbara Museum of Art 를 찾았는데 마침 대대적으로 수리중이어서 한층만을 전시장으로 쓰고 있었다. 이곳 박물관이 동서양의 미술작품을 광범위하게 소장하고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주로 판화작품만을 보게되어 많이 아쉬웠다. 박물관을 나오니 곧바로 명소 아케디아로 연결되어 그곳의 작은 화랑들과 예쁜 가게들을 둘러보며 눈을 호강 시켜주었다.

다시 배로 돌아가야할 시간이 되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두시간 남짓의 짧은 신타바바라 시내 관광이었지만 신타바바라의 새로운 면을 만나게되어 모두들 즐겁게 한나절을 보낸 후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다.

김영례(67)

크루즈여행 넷째날 우리는 평화롭고 예쁜 Enenada땅을 밟았다. 우리 하루를 맡아줄 백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태평양 해안 도로를 달려 해수분수 장소에 도착했다. 나름 명품(?)가방이 즐비한 상가를 지나 파도가 바위 골짜기를 만나 굉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분수를 구경하고 오늘의 꼭지점인 해수 온천장에 온천물을 끌어올릴 삽과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한 물통을 들고 모래사장으로 향했다. 백선생을 따라 뜨거운 모래를 파서 온천탕을 만들고 용감한 우리 친구가 모래사장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수 온천을 즐기고 우리는 족욕을 즐겼다. 정말 신기했다. 나름 힘든 운동에 지친 우리는 백선생이 준비한 신선한 해물파티를 즐겼다. 조개, 전복, 생선구이,모듬회, 게, 매운탕 등등... 아주 맛이 있었다. 수고해준 명숙이와 백선생 덕분에 우리는 아주 알찬 하루를 보내고 배에 돌아왔다.





정은옥 (68)

Viva Ewha 68!

오래동안 기다려온 재상봉 첫날에 서소문에 위치한 ENA hotel에 들어섰다. 졸업후 반세기만에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 Hotel은 새건물이어서인지 아주 깨끗하고 현대적이다. 짐을 풀고 Lobby에 나가서 조금은 낯설지만 몇명의 친구들과 반가운 첫인사를 나눈다. 50년전에 기억되던 모습을 얼굴에서 찾아내고 이름을 확인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저녁식사는 외국에서 방문한 60명 동창을 위해 한국동창회에서 특미 칼국수와 부대찌개를 대접한다는 소식이다. 비록 같은 미국에 살지만 이름만 가끔 들었던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식사를 함께 했다. 이틀째인 29일에는 50주년 기념 오찬이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203명의 동기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모두들 세련되고 멋스럽고 자신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아름다운 모임도 드물겠다고 생각을 하게되었다. 작가이시며 국어를 가르쳐주신 신지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10여명의 선생님을 앞에 모시고 같은 반끼리 기념촬영을 한 후에 특별순서가 있었다. 한국 팀으로는 만들어진 합주가 있었고 미국팀을 대표하여 광숙이가 보내준 악보로 전미주에서 연습을 해온 12명의 북3중창단의 '사랑의 테마'와 '은혜의 강가로'의 공연이 있었다. 광숙이의 반주로 열심히 부른 탓인지 모두들 좋아해서 광숙이의 노고가 보답되는 듯했다. 같은 반이었어도 잘 몰랐던 친구들도 간단한 자기소개로 인해 매일 만나왔던 친구처럼 다정한 얘기를 나누게되었다. 저녁식사는 의사인 이혜리가 맛있는 순두부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해주었다. 대망의 30일은 모교방문의 날... 남편과 함께 덕수궁 뒷담길을 걸어가니 이 아름다운 길로 가면 이화여중고가 나온다. 푸르른 가로수와 호젓한 길이 더 사랑스러웠다. 정문을 들어서니 옛 본관은 간데 없고 회색의 고층건물이 시선을 가로 막는다. 본관은 벽돌집이었고 선생님들이 손님 접대후 깎아놓은 껍질을 모아 차를 만드신다고 하시던 모습과 권길상 선생님과 재밌는 음악 시간 그리고 책상 밑에 탁구 racket을 움켜쥐고 있다가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김문주와 잠깐동안 탁구를 치던 탁구실... 이제는 자취도 없는 잊을 수 없는 장면장면이 내 가슴속에만 살아있게 되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있었던 창립 134회 기념식에는 많은 자랑스런 이화인들의 수상식이 있었다. 물론 강경화 외교장관도 수상했

으니 이렇게 훌륭한 선후배가 있는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남편에게 자랑하는 셈이 되었다. 마지막에 교가를 후배들과 함께 부르니 가사 하나하나가 의미있게 들리며 이화의 역사와 우리의 사명에 가슴이 찡해진다. 이화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리워지는 같은 가사의 이화교가! 졸업30, 40, 50, 60을 맞아 방문한 동창들을 위해 학교에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셨다. 후배들에게 모든 serving을 받으며 식사후에 항상 그리던 노천극장으로 향하였다. 아직도 훼손없이 잘 버텨준 노천극장이 왜 그렇게 반가울까? 전교생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이가 들어 찾아오신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던 곳, 5% 내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특별석, 교내 합창대회에서 지휘하던 추억, 등나무길과 친구와 등하교길의 아름다운 이화동산은 다시 한번 꼭 가보아야만 했던 곳이었다. 오늘 그것도 홀로가 아닌 남편과 함께 걸으며 이화가 남편의 학교(공부만 시켰던 경기고)와는 차원이 다름을 보여주게 되었다. 강인한 기독교 교육과 감수성을 가르쳐준 학교교육에 감사할 따름이다. 모두들 전공과는 다르게 2차 3차의 능력을 가지고 또 개발도 하며 인생을 참으로 즐기는 동창들이니 말이다. 저녁식사는 김유주 부회장의 Italy식의 멋진 식사로 인해 모두 행복한 밤이었다. 30일에는 여수로 가기위해 7대의 bus에 올랐다. 점심식사는 보리굴비정식의 참맛을 알게해준 식사였고 여수의 Hidden Bay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대연회에는 연극배우인 지영란의 노련한 사회로 모두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점은 각 table에서 미녀를 선발해서 준비된 Aluminum foil과 tape을 사용해 장식해주기 대회였다. 재치가 엿보이는 창의력이라니... 또 다른 program인 한국 staff들의 dance도 흥미로웠고 또 미국팀에서 준비해간 세계 7개국 의상을 입고 30여명이 등장하여 각국의 민속노래와 함께 춤도 선보여서 즐거움을 주었다. 광숙씨!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연출하라 수고 많이 했어요! 음식도 훌륭했고 즐거운 연회였었다. 1일에는 통영으로 가는 길에 담양 떡갈비집에 갔는데 음식이 양전하게 만들어졌고 맛도 훌륭했다. 죽림원을 다녀온 후 통영 Stanford Hotel로 갔는데 너무 좋은 위치에 지어져서 어느 방에서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다. 2년전에 지어 규모가 짜인 건물에 바닷가를 거닐 수 있도록 길을 포장해 놓아 아침 산책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저녁의 연회에는 산해진미, 진수성찬과 함께 patio에서 chef님들이 직접 구워주시는 양고기, beef, 새우등 큰 대접을 받았다. 연회에는 조선희의 깔끔한 사회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무작위로 불려나와 한국식 뽐아대는 친구들을 위해 즉흥적으로 반주해주는 김광숙 무보상 Pianist의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지... 2일에는 열심히 귀경하여 간단한 식사로 대장정을 무사히 끝내었

다. 한국동창회의 임원들이 최고로 마련해주고 우리들을 대접해 줌에 감사드립니다. 일정은 끝났으나 이틀 후에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신인숙 회장님이 별장으로 초청해 아름다운 강과 앞뜰, 숲이 우거진 뒷정원에서의 성대한 식사를 즐기게 해주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 동창 친구들 만세!



55

합창단에서 연습했던 곡중에 '바람'이 있습니다.
 “우린 늙어 가는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 가는겁니다.”
 운전하기가 어려워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과일처럼 향기롭게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임순희



56

우리 56년 동기들은 2 달에 한번씩 모이는데, 15명 이상은 늘 모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생일을 맞은 친구들 생일 축하를 합니다. 여기는 5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 사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모든 친구들 건강 조심해서 오랫동안 함께모여 즐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영숙



57

롱비치 미술관 관람

- 올해 정월에 오레곤주에 사는 조경숙과 북가주에 사는 정정순 그리고 뉴저지에 사는 장대옥이 로스엔젤스를 방문해서 동기생 20여명이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볼겸 모임을 갖고, 마침 황영애 남편 안영일 화백이 개인전을 열고있는 롱비치 미술관을 다 같이 관람하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뮤지엄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기분내는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보통은 동창들이 식당에서 모여 점심만 먹고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데 이날의 우리들 모임은 아주 특별하고 멋진 만남이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 뮤지엄측에서도 Ron Nelson 관장과 큐레이터들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고 직접 작품설명과 안내를 해주어서 미술관 아래 윗층에 가득한 안영일 화백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 우리 동기생들이 80세가 되는 2018년, 모두들 감회가 남다른 이 해를 맞이하는 정초에 이렇듯 아름답고 멋진 모임을 가진 우리들은 새해의 덕담과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헤어졌다.

이양훈



59

우리동기는 일년에 4번 주로 용수산에서 한 20명 모입니다.

내년에 이화졸업 60주년 행사 준비로 서울에서는 친구들이 매우 수고들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공식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LA에서는 몇 명 못 참석할 것 같아서 참 섭섭하고 미안하게 생각들 한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히 기쁘게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 이화 온 가족들 하느님께서 늘 지켜 주시기 기원하면서

연혜정



60

저희 60년도 동기들은 매월 3째 토요일에 New Seoul Hotel 에서 20년째 모이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등 하면서 시간 가는줄 모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먹으면서 정든다고 안보면 보고싶어 지는 친구들이 됐지요. 거리상 Orange County 에서 따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미소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미소는 우리를 푸르게 한다
 아침햇살이 이슬을 말리듯
 미소는 우리의 눈물 방울을 없애준다
 여기 사랑의 눈길만이 볼수있는
 부드러운 의미를 가진 미소가 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햇빛으로 가득 채우는
 미소는 네가 나에게 준 그것이다”
 <미소 C.W. 칼라한>

민경문



남가주 이화여자 중 · 고등학교 동창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 곳으로 동창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연습: 매주 토요일 9:30am~12:30pm

장소: 평화의 교회

주소: 1640 Cordova St. LA, CA 90007

단장: 장영희(66) 323-819-1922 / 부단장: 송묘령(70) 858-610-5517

회계: 오은경(74) 213-216-0754 / 총무: 이윤경(69) 213-675-0725

62

새해들어 (1/20/2018) 사랑하는 어머님 (홍혜경 권사님) 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젖은 친구 흥선애를 위로하다.

운전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LA에서 두번 (3/2/2018, 7/16/2018) Orange County에서 두번 (5/17/2018, 7/31/2018) 친구들 모임을 가졌음.

Seoul 에서 장미혜, New York 에서 김영수 두 친구가 Los Angeles 방문하여 (5/16/2018) 반갑게 만나 친구들소식을 전해듣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음.

그동안 은퇴후 의료선교를 하시던 최수상 MD(심장전문의) 께서 지난 3월말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친구들의 간곡한 기도로 빨리 회복되고

있어 감사하다는 차남이의 소식 받다. 하루 빨리 선교지 (Cambodia)에 가기를 소망하시는 마음 이해하나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후에 선교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구 김수영이 아들이 살고 있는 North Carolina로 이사 (5/8/2018)가게 되어 섭섭한 마음과 우리 62기 동기회가 항상 즐겁고 멋진 만남의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 전해움. 멀리서도 62기 카톡방을 잊지않고 소식 전하며 지내기로 약속함.

금년에 우리 합창단에 송영자가 join 하여 우리동기 5명 (김지은, 김정자, 최숙자, 조양자)이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친목을 다지고, 믿음으로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지휘자님의 지도하에 각종 행사 때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드리며 한번뿐인 우리인생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노래하며 지내렵니다.

동기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소서!

조양자



63

저희 63 OC 동기들은 올해는 매달 같은 식당에서 만납니다. 여긴 음식도 푸짐하고, 가격도 좋고, 차 세울 곳이 널널하고, 시간 제한도 안 받고 또 거기다 후식을 가져와서 coffee 까지 곁들일 수가 있어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 만나면 서로 반가와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는지를 묻고 서로 서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다음달 모이는 날을 정하고 헤어집니다. 올해까진 아직까지 특별히 아프거나 힘든친구는 없지만, 절주는 언제나 골골해서 친구들이 항상 걱정하고 언제쯤 좀 나아서 얼굴을 볼 수 있을까를 묻곤 해요.

선배언니들의 LA, OC 로 다니면서 하시는 활동 사항들을 들으면서 항상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희동기들은 대부분 LA 나가는 것을 포기한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특히 58년 선배들은 저희들보다 더 젊게 보여 저희 동기들이 여기엔 좀 분발했으면 해요. 거울지 창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려요.

임철자



64

저희 64년 동기는 두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La Quinta Resort 에서 만나 2박3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명옥



65

우리 '65년 동기는 올해 active 하지는 못했다. 아픈 친구들도 있고, 또 배우자가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나 25명 이상이 매일매일 카톡에서 안부와 사랑을 전하고 누구든지 힘들면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지낸다. 또 LA 와 오렌지카운티에서 같은 동네에서 대여섯명씩 모이기도 한다. "이글을 읽는 우리 65 아가씨들아... 이 '남가주거울'을 받으면 곧 이화 송년모임인데... 많이 많이 모여서 2017년의 영광을 되찾아 보자구나... 원지 알지?? 용수산에서 27명(?)이 모였던날 말이야... 카톡 천사들, 애린이, 향전이, 병희 모두 고마워. 아침에 너희들이 보내주는 커피 없으면 무슨 맛에 살까? 모두모두 아프지 말고 올해 12월 송년모임에서 만나자." 서경이가

전서경



66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 위해서 저희 66기는 LA 의 최신 명물 미국 서부 (West of the Mississippi) 에서 제일 높은 건물 Wilshire Grand Center 69층에서 맛있는 오찬 부페를 즐기는 모임을 2017년 12월 6일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모두 건강히 지내고 있고 자녀들도 거의 모두 결혼시킨 상태라서 상조금용으로 일년에 \$30씩 모아 놓았던 회비를 그날 써 버릴 수 있었다는데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에도 건강히 지내기를 기약하고 11월에는 프랑스의 몬테칼로, 니스, 칸느, 프로방스 와 파리를 돌아보는 리버크루즈를 16명이라는 대 식구가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혜옥



67

우리 67기는 여전히 두달에 한번씩 주로 La Habra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을 옮겨가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대표 김명숙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있고 지난 3월의 칠순여행도 순조롭게 이루어 졌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거의 이십년째 매주 다녀오는 최영희 전도사를 비롯하여 한미장학재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영미 부부와 김숙 부부등 이화의 기독교 정신에 부합되는 믿음의 딸들이 우리 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 하시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거룩한 사명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송혜성



69

이화 69기 정기모임을 격월제로 다정히 담소하는 모임을 갖고 있고 2019년 50주년 행사 참석에 관하여 의견및 정보를 나누고있습니다. 50주년 여행 및 디너파티 행사경비 백만원이고 적극 참석 하기위해 친구들이 노력하고있는 와중에, 한국 이화 69학번 박인좌 친구가 해외동창 한국 방문 호텔 투숙경비로 천만원을 기부해주었습니다. 뉴포트 비치쪽에 거주하다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의 따뜻한 우정에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현을 어찌해야할지... 이곳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김용화 동기가 50주년 행사 기부금을 한국에서 냈다고 합니다. 한국 69 임원단이 50주년 행사 기금 모금 목표액을 5억으로 정했는데, 이미 달성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서로 건강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나기를 바라며...

심현주



70

우리 70기 친구들은 두 달에 한번(홀수가 되는 달) 정기모임을 갖습니다.

올해 1월 모임에는 타주에서 방문한 친구까지 합하여 23명이나 모여 다시 한 번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시간 가는줄 모르고 실컷 떠들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일하던 친구들도 거의 은퇴했으니 앞으로는 더 자주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자주 이곳을 방문해주는 뉴저지에 사는 영옥이, 오랜만에 만난 제영혜, 미네소타에서 달려 와준 진혜, 시카고에서 LA



로 이사 온 성화, 산호세에서 방문한 경숙이, 멀리서 방문한 종식이, 서울서 방문한 인경이, 또 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한 성숙이, 또 이화를 빛낸 상을 받은 명주, 친구들의 믿음생활에 좋은 글을 보내주는 남옥목사님...사진에는 없지만 가끔 LA방문하는 수영이, 하와이에 사는 경숙이, 그외에 반가운 얼굴들 (박은주, 채영애, 김영진...)일일이 소개하기가 힘듭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기쁜 것은 동기 김영주가 이번 모교 창립 기념일에 사회,전문 부문에 이화를 빛낸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방면으로 큰 활약을 펼쳐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남아주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더욱 건강에 힘쓰며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즐겁고도 보람되게 살려고 모두들 노력하겠습니다. 이화 70 친구들. 화이팅!!!!

백혜란

71

저희 71동기 모임은 매달 셋째 토요일에 LA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25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계모임 형식으로 회비를 내어 식사와 동기들의 경조사 및 그달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해 생일 축하도 해줍니다. 5년 전 부터는 멀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는 친구들을 배려해 LA와 Orange County를 번갈아 가며 모입니다. 한 때는 30명 가까이도 모였었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 손자를 돌보는 친구, 은퇴후 여행을 다니는 친구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이면 웃고 수다떨고 즐겁게 보냅니다. 친구들 모두 건강해서오래오래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영숙



72

저희 72기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남가주 총동창회를 이해란회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과 임원진들이 가장 애쓰고 있지만 동기들이 모두 임원과같은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돕고 있습니다. 동창회일을 하기 전까지는 평균 15-16명 정도가 매달 정기적으로 한인타운서 만나고 있었고 일년 중 세번은 Irvine등 남쪽에서 멀리 한인타운까지 오는것을 고려하여 Orange County의 식당에서 만나오곤 하였습니다. 일년에 한번 정도는 함께 1박2일의 여행을 계획하여 Las Vegas를 가거나 친구의 별장을 이용하여 함께 자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구요.



저희가 2년에 걸쳐 총동창회를 봉사한 것은 오히려 저희 친구들끼리 결속력을 더하게 해주고, 걸핍기로 알고있던 친구들의 성격과 개인적인 일들도 더 알게되어 마음들이 더 가까워지게된 유익한 시간들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친구들이 생업을 위해 매일 직장에 매달린 친구들이 제법 있으나 올해부터 가능해진 메디케어 덕에 조금씩 은퇴를 고려하고 있고, 이미 사표를 내고 타주로 이사를 결행한 경덕이를 필두로 2-3년안에 인생의 제2막을 계획하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면 함께 긴 여행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을 깨고 만화영화를 그리다 홀연히 알바니아로 선교를 떠나 낯선 곳에서 그곳 언어를 배워가며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며 저희들을 모두 놀라게한 부원이를 한번쯤은 함께 방문할 계획도 세워뵈었습니다.

박영신

73

설명은

1. 동기 7명이 3월 8일 부터 11일 하와이에 다녀 왔는데요, 사진은 Manoa Fall에 갔을 때 비가 와서 노란 비옷을 입은 우비소녀들입니다. 사진을 찍어준 외국 애가 Minions 같다고 자기 전화기에 저장한 사진이에요.
2. 지난 5월 19일에 예년처럼 선생님 세 분 모시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연로해 가시는 모습에 다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즐거워 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기뻐했습니다. 수고 감사드립니다.

박연옥



74

새해를 맞으며 지난해 달력을 떼어냈습니다. 웬지 그냥 버리는 아쉬워 한장 한장 넘겨봅니다. 달 따라 계절을 담은 멋진 풍경사진도 보고 깨알같이 적어논 메모들도 훑어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 봅니다. 병원예약, 정수기 filter 교환, 이런저런 행사와 만남 등등. 그중에 한달에 한번도 빠짐없이 적혀 있던 이화 74모임 노트들.

한달에 한번씩 동기들 집에서 모여 식사하고 그간 지낸 얘기 나누고 웃고, 헤어지기 아쉬워 또 한참을 끈 후에야 날개털 같이 포근하고 가벼워진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며 벌써 또 다음 만남과 웃음이 기다려지던 12번의 이화 74모임들.

올해도 1월에 회차네 집에서 모임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모임에 미숙이, 귀민이, 유환이가 더 와서 이젠 스물셋이 함께 합니다. 사정에 따라 많이 모임 때도 적게 모임 때도 있지만, 모임이 크면 큰대로 북적거려 좋고 작은 모임일땐 오붓한 느낌이 있어 좋아요.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혼자 읽기 아까운 글이나 정보, 좋은 말씀이나 사진도 공유하고, 가끔 사오정 놀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웃음박도 터지고, 일상 이야기도 나누다보니 그저 언제나 서로 연결돼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래오래 자주 모이자 친구들아!

아~ 늦게 시작된 울여름 더위는 왜 이리 후덥지근하고 긴지....게다가 최악의 산불까지 겹쳐 더 뜨겁고 힘든 여름입니다. 그래도 뜰에 형형색색 제 빛깔을 뽐내며 피어있는 저 꽃들은 따가운 여름 햇살이 우리에게 선사한 유채화.

그리고 몇주 지나면 온드 모르게 가을이 오겠지요. 가을이 되어 마당에 주렁주렁 열린 감이랑 굴이 익으면 색깔 고와질 때를 기다려 바구니 한가득 따다가 우리 이화 모임에 가져가야지. 주렁주렁 알 고운 초록빛 열매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조 한수 절로 흘러나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이 아니라도 품엄즉 하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업슬새 그를 슬허 하노라”

그러나 나는, 품어가 반질이 많을새 그를 즐겨하노라~

이선희



76

연휴가 낀 긴 주말에 모임 날짜를 잡고나서 아차 했습니다.

아!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그런데 웬걸, 더 많은 친구들이 모였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 오라는데도 없는가 봅니다.

Resort 같은 유애집에 모여서 많은 수다 떨고, boat 는 타보지 않았지만, 배경으로 사진찍고 harp lesson 하고 Italian restaurant 에서 맛난 저녁 먹고 다음을 약속하며 헤어졌답니다.

이성자



77

77 기 소식 전합니다.

한동안 땀뻘던 77기 친구들이 1월에 모여 올 해는 환갑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소리를 모았다. 두달 사이에 여행 스케줄은 계속 바뀌고 카톡메세지가 바쁘더니 3박 4일 바하마 크루즈에서 1박 2일 바하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국엔 당일 코스, 카탈리나 아일랜드가 결정되었다.

비가 부슬 부슬 내리는 3월 10일, 모두들 기대 반, 후회 반 하며 배를 탔다. 생각보다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 막상 배를 타고 보니, 비로 인한 우리들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비가 오는 카탈리나 섬은 매우 운치있고 아름다워 우리의 마음을 한층 설레게 하였다. 이 섬에 12년만에 오는 비가 환갑을 맞는 우리들을 환영이라도 하는 듯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서 주었다. 버스를 타고 카탈리나 섬을 돌며 역사이야기도 듣고 경치도 보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니 같이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마음에 걸렸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날의 카탈리나 섬이 생각날 것이다.

올해는 기억에 남을 큰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드디어 환갑에 접어들어 6학년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몇 안되는 동기중의 하나인 배형일의 운명 소식이었다. UC산타 바바라 대학에서 한국학과 문화를 강의했고 한국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책으로 펴낸 한국학 학자이자 고고학 학자인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4년간 암투병을 하면서도 강의를 계속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친구, 죽기 한달 전까지도 남의 일처럼 자신의 투병 생활을 얘기하며 마지막을 준비한 친구, 너무도 갑자기 가버린 배형일, 그 친구가 그림다

정은경



79

79년도에 엘에이로 이민 와서 지내다가 혹시 여고 동창 친구를 만날수 있을까 싶어서 작년에 남가주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동창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연말 송년회를 한다고 하여 참석해 보니 선배님들의 희생과 봉사로 성대한 송년회 행사여서 상품도 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동기인 석재희를 만나서 반가웠고요. 합창단 지휘자로 봉사하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잦은 외국출장으로 참석은 못 하지만 나중엔 동창회를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더 많은 동기 동창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애



CDS는 지난 23년간, 정직과 신용을 지켜온 **크레딧카드 결재대행** 전문기업 입니다.



1 Terminal, ATM 설치

기계문제에 대한 발빠른 서비스

2 POS 전문 Support Team

프랜차이즈 통합 관리

3 PCI DSS 전담반

인증방법에 대한 안내와 대행

4 Chargeback 전담부서

Fraud Transaction 예방관리

CDS Toll Free 1-800-371-5109 / www.cdsus.com / info@cdsus.com

- ① QIR Certified POS 설치 및 관리
- ② EMV 터미널 무상 렌탈
- ③ PCI전담 서비스
- ④ 리스크/차지백 전담 서비스

© 2019 Creditcard Discount Services Inc. All rights reserved. CDS is a registered ISO of Elavon, Inc., Georgia, Fifth Third Bank, Cincinnati, OH, Wells Fargo Bank, N.A., PO Box 6079, Concord, CA 95524



한아장학재단

개발도상국 지도자 양성 / 현지 선교사 통해 영재 발굴 /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원

Suhn & Hanah Park Foundation

2349 Jefferson St. #324, Torrance, CA 90501 T: 310. 701. 0852 Email: shpf@hanmail.net

■ 병원 한의원용 Medical Supplies ■

Since 1989

웨스턴
3가

라이프 의료기구용품

귀국선물용
의료기구



※개업 30주년 기념 세일

의료기구용품

김정자(64)

환자용전기침대/휠체어/워커/산소호흡기/이동식변기/목욕실보조기구/노인용기저귀
 혈압기/혈당검사기/3M 청진기/진단기셋/인공유방 및 브라(Lingerie), 스타킹,
 간호원 유니폼, Table Paper, Inversion Unit, Tens, 마사지기구, 온열기



Accredited by the Joint Commission

※기능성 특수 신발, 당뇨인을 위한 특수 신발 ※

Tel. 213.385.9133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 Estate Planning
- Business Planning
- Life Insurance
- Retirement Planning
- Charitable
- Long Term Care Insurance



Yonghwa Kim Lee
 김 용 화 (69)
 ChFC, LUTCF, MBA, CPA
 213.760.2250
 kimy@ft.NYL.com



Eun Kyung Gi
 정은경 (77)
 818.935.3527
 ekgi@ft.nyl.com
 www.elainegi.com

www.younghwakimlee.nylagents.com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57년 동기 일동

제 17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과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63년 이용복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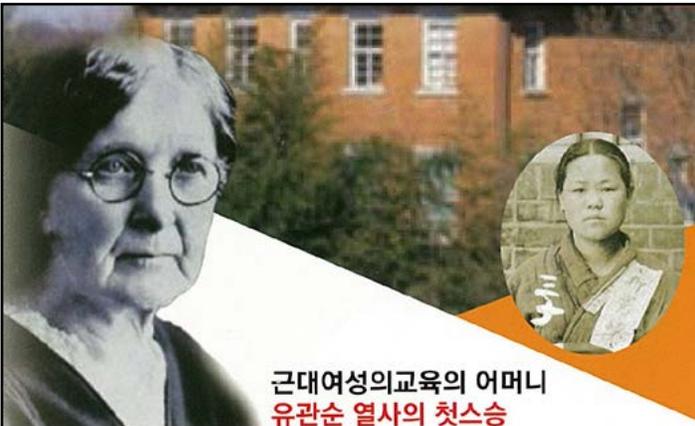


72년 최동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안나 (57) 가족 일동



근대여성의교육의 어머니
유관순 열사의 첫스승

샤프선교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한국선교유적연구회
www.missionstay.or.kr

한국 : 041) 858-5791 / 010-3324-8512

미국 :

L.A. 공동 위원장 : 김웅민 목사, 박형만 장로, 이한희 장로

사 무 총 장 : 정영희 목사(323-246-2394)

New York 위원장 : 김성태 장로

사 무 총 장 : 김명래 전도사(914-473-7401)

 최한희(64)

남가주 거울 제17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72년 김경덕

지난 2년동안 나누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72년 동기 일동

제 17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2019 / 20년도 남가주 동창회를 위해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3년 동기 일동

제17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과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56년 한영숙

| 이사회비 및 동창회비 내역 |

1/1/2018 - 10/17/2018

동창회비 내신 동창 (277명) \$8,360.00

졸업년도

- 미상 임영숙
- 52 이시한
- 53 강경자 명은숙 이영순 임인자 한명순
- 54 김숙정(\$60) 박정옥 서현숙
- 55 임순희 전영희 홍연숙
- 56 김순성 김정은 맹혜숙 박영옥 박희경 송영자 원순주 유경선
- 이혜리 정태숙 최화자 한영숙 허명숙 홍정임
- 57 김미희 김윤자 김혜련 이안나 이양훈 이재경 임영실 정수혜
- 주영희 차명숙
- 58 방부혜 송 명 신현자 오정옥 윤정애 이영희 이장란 장한열
- 최운봉 홍인숙
- 59 59기 합동10명(\$300)
- 60 김동승 민경문 박영희 배애자 신호국 이성숙
- 61 61기 합동10명(\$300)
- 62 김지은 김희성 박미자 송영자 이경자 조양자 최숙자
- 63 강승자 고혜원 고화미 김명자 김보연 김송자 김여옥 김윤자
- 김인자 김해자 김혜중 나춘실 박절주 윤혜자 이경옥 이명자
- 이상옥 이수미 이영애 이용복 이인화 이경숙 이경자 이혜련
- 이혜숙 임주자 임철자 정건희 정운숙 주춘탁 최경자 최애자
- 최정혜 황신실
- 64 고광애 김길자 김명옥 김명원 김문자 김소연 김정선 김진순
- 박영신 박은명 방인숙 배경순 백현자 서원희 신영숙 안순희
- 오현숙 이복희 이옥경 이주희 조규령 최금화 최한희 최희경
- 호진희 홍은식
- 65 김영주 노현숙 송혜경 유소열(\$50) 유향전 이열의 전서경
- 전애린 조영애 허순희
- 66 김영희(OC) 민용기 안정옥 이정숙 이혜옥(미) 장영희 정순희
- 정은자
- 67 김동순 김명숙 김영례 김종우 도경애 박경옥 박영신 박영애
- 송혜성 원승교 이미경 이상민 조민선
- 68 금봉숙 김경선 김광숙 김명숙 김애권 김인수 김정신 김태숙
- 김혜경 김혜실 박성녀 박영순 박혜선 백영희 윤미훈 이문희
- 이선숙 이수인 이영주 이정애 이혜정 전민자 전옥희 정은옥
- 정현진 최영희 한금숙 한숙희 황선숙
- 69 이윤경
- 70 70기 합동 10명(\$300) 이영현 홍훈정
- 71 문성희 안영숙 조미영
- 72 강은주 권영화 김경덕 김다애 김은미 박혜란 방창범 배경희
- 백경희 서혜영 이대경 이영숙A 이영숙B 이춘희 이혜란 이혜옥
- 이희목 장승혜 전해란 최동은 최순화 최재정 황진숙
- 73 박연옥 신연철 윤은옥 이선옥 전연옥 정애수 정은복 홍미향
- 74 김영자 김은경 김경미 김중현 김지인 박경우 신은화 유선이
- 이선희 이영희 이유환 이현경 이혜진 장난희 전안복 정귀민
- 지희자 최정희
- 75 문애리
- 76 김한영 박은경 박은란 송영미 이성자 이영심 전유애 정영옥
- 최혜경
- 77 김미혜 정은경

이사회비 내신 동창(144명) \$23,400.00

졸업년도

- 미상 임영숙
- 52 김봉숙 이충선
- 53 임인자
- 55 임순희(\$1000) 전영희 홍연숙
- 56 박영옥 박희경 이혜리 정태숙 최화자 한영숙(\$1000)
- 57 금동희 이안나(\$1000) 이양훈 이재경 장명숙 차명숙
- 58 박안자 송 명 윤정애 이장란 장한열 최운봉 홍인숙
- 59 연혜정 오경자 홍영자
- 60 김동승 김영인 민경문 배애자 신호국
- 61 오순자 이미자
- 62 김지은 김희성 송영자 이경자 조양자
- 63 강재경 김보연 김여옥 김윤자 이경옥 이용복(\$200) 이혜숙
- 임철자
- 64 김명옥 김문자 김정자(\$1000) 박영신 이주희 최한희 최혜경
- 호진희
- 65 김영주(\$200) 노현숙 전서경(\$200) 전애린
- 66 김영희(LA) 김영희(OC) 안영혜 이혜옥(예) 장영희 정순희
- 67 김숙(\$200) 도경애 박영애 송혜성(\$200) 이미경 최영희
- 68 김광숙 김애권 이수인 이정애 정은옥 최영희
- 69 김용화 박혜옥 심현주 이윤경
- 70 김명주 김성숙 김영미 김용복 김은희 김임숙 김춘영(\$200)
- 백혜란 송모령 정진선 홍순애 홍훈정
- 71 구자란 안영숙
- 72 강은주(\$300) 권영화(\$300) 김경덕(\$300) 김다애(\$300) 김은미
- 박영신(\$300) 박혜란 방창범 배경희(\$300) 백경희(\$300) 이대
- 경(\$300) 이영숙A(\$300) 이영숙B(\$300) 이춘희(\$300) 이혜란
- (\$500) 전해란(\$300) 정경실(\$200) 정혜송 최동은(\$300) 최성
- 혜 최순화(\$300) 최재정(\$300) 한종숙(\$300) 황진숙(\$300)
- 73 남은영 박연옥 신연옥 엄영애 윤은옥 이경화 이선옥
- 임종화(\$1000) 장유숙 전연옥 정애수 정은복 홍미향
- 74 김은경 이영희 지희자
- 75 문애리
- 76 박은란 이성자 이영심 전유애
- 77 정은경
- 78 박혜경

장학 후원금	Total \$2,000
64 박영신(\$1000)	68 박성녀(\$1000)

Backyard Picnic 후원금	Total \$1,000	
55 임순희(\$300)	56 한영숙(\$400)	57 이안나(\$300)

거울지 후원금	Total \$4,000	
각 기별 후원금: 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7(20기)		

❖ 광고로 후원해주신 동창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600.00

(52이충선, 56한영숙, 57 이안나, 57 이양훈, 63 이용복, 64김경자, 64최한희, 69 김용화, 72박영신, 72김경덕, 72 최동은, 72기 일동, 73기 일동, 77정은경) 이 외에도 이사회비와 동창회비로 후원해주신 모든 동창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혹시 누락되거나 성함이 잘못 기재된 동창이 계시면 동창회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계 이대경(72)



긴장반 우려반으로 시작한 2017년에 비해, 어느정도의 여유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18년이 참 빨리도 지나갔네요.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을 보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위로하며 사계절도 없는 이곳 남가주의 가을을 그리워하며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 곁에서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올 해엔 더 이상 저희와 같이 할 수 없게 되고, 떠나고 오지 않는 길손처럼, 우리곁을 영영 떠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짧고 긴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인생길에서 보람과 행복, 때론 좌절과 슬픔을 잠시 느끼고 지나가는 아주 짧은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네요.

헤어진 모든 분들을 그리워하며...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야겠지요. 그래도 그중에 보람과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다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질서가 자연에서 멀어져 가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지구 살리기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한 벼룩시장, 한 여름밤에 잠시나마 클래식, 재즈에 심취할 수 있었던 일, 선배, 후배, 동기들이 한 데 어우러져 웃고 즐겼던 일, 대선배님들의 뜻 밖의 큰사랑으로 감동 받았던 일, 때론 어렵고 힘들었던 일까지도 모두 '거울'지면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거울이 빛을 내기 위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 해도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백경희 (72)



자유 · 사랑 · 평화

2018년 이화 송년모임



- ❖ 일 시 : 12월 1일(토) 오전 11시
- ❖ 장 소 :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 회 비 : 1인 : \$60 / 부부동반 : \$120
- ❖ 연락처 : 이해란 (818) 645-6210 hlkim53@gmail.com
백경희 (213) 820-8668 helenahn424@yahoo.com

모두가 참여하는 악세사리 위주의 10번째 베품시장이 열리며
남가주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영동발랄 패션쇼'가 열립니다.
또한 모국방문 왕복항공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